

定慧社

제 15 호
불기 2541년
가을 호



松廣寺講院
송광사강원

박물관 유리벽 속의 부처님

국립부여박물관에 들어서니, 주변의 조경은 어느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듯이 주변 폐사지에서 나왔을 짐한 탑과 돌부처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랜만에 찾은 박물관에서, 선사시대 유물관부터 시작하여 옛날 조상들의 생활에 빨려 들고 있을 때 초등학생들이 대여섯명 몰려왔다. 공책을 들고 열심히 적고 있는 꼬마가 이것저것 말을 건네며 의문을 풀려 애쓰는 모습이 기특하다. 하지만 내 발걸음이 지루했던지 불교전시관을 들어섰을 땐 이미 앞서가 버린지 오래여서 아쉬움이 남았다.

서산 마애불의 대형 사진에 이어, 크고 작은 성보(聖寶)들로 전시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전시실. 비록 패망한 나라의 유물이라서 얼마 남아있지는 않지만, 별도의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문화에서 불교를 빼놓을 수 없음을 느끼게 한다.

백제 부처님들의 온화한 모습에 감탄하고 있을 즈음,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미소를 보았다.

박물관 전시실 유리벽 속에 갇혀지면서, 이미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렸기에 잃어버린 미소를.

하나의 문화재의 가치만으로 대접받고 있는 성보(聖寶)들.

이틀후 경주 박물관을 찾았을 때는 더 많은 부처님들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 옛날 많은 조상들로부터 신앙의 대상으로 대접받았을 부처님들.

이제는 문화적 가치로써만 대접받는 성보(聖寶)들.

문화재가 우리 불자들만의 것은 아니기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국교(國教)가 없는 현대에서 국립박물관보다는 오히려 불자들의 손에 보호되어야 더 효율적일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우리의 성보들이 문화재로서의 가치 위에 성보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마침 10월3일 송광사에도 성보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이제 우리 불제자들의 손으로 지켜지는 성보들의 그 환한 모습에서 온전한 미소를 마음깊이 새겨 볼 수 있기를 발원해 본다.

定慧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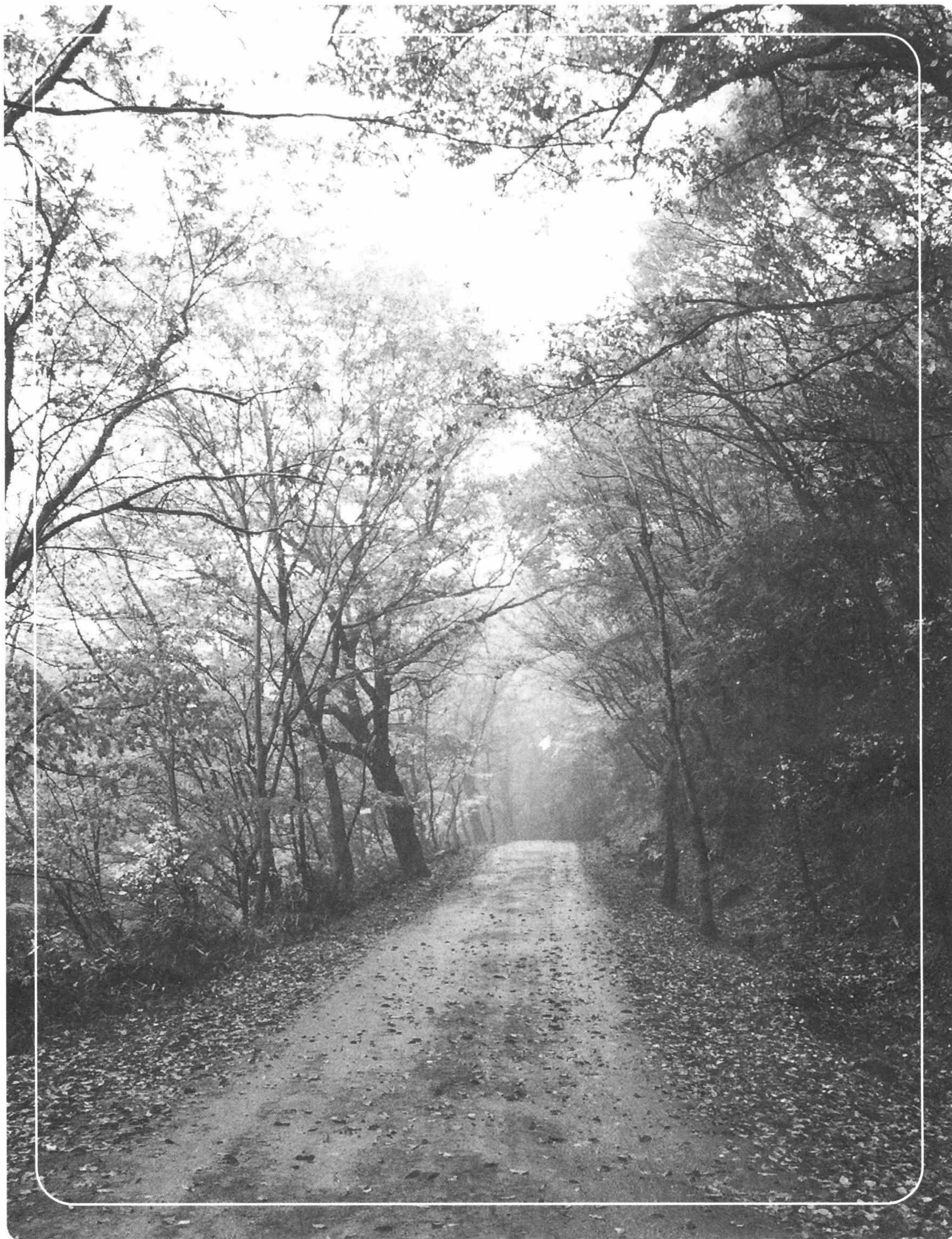
제 15호 불기2541년 가을호

발행처/송광사 강원·發行人/智雲(講主)·편집인/
본연(입승)·편집장/연각·편집/정원, 월륜, 보각,
화진·사진 삽화/선운·발행일/2541년(음) 10월 1일·
주소/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0661) 755-
5300, 5302·인쇄/도서출판 보림 광주광역시 동구 서
석동 62-1 ☎ (062) 232-6702

차 례



조계의 물소리	박물관 유리벽 속의 부처님	편집부
사진 속의 이야기 2/ 길(道)		편집부
기획연재 13	4/ 강원은 수행도량이고 학인은 구도하는 수행자이다	지운
지대방 이야기	10/ 나의 행자일기	정산
	12/ 해우소 이야기	경선
	14/ 백중 기도	화진
	16/ 송광사에는 왜?	혜전
	18/ 벌써 가을인가?	설각
	20/ 기도	본연
화보와 소식	22/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특별기고	25/ 재가불자도 성불할 수 있다	현장
만행기	28/ 지리산 천황봉의 일출	보일
	30/ 부석사 예찬	무념
선다일미	32/ 차 수행법(2)	편집부
가장돕기	37/ 소년소녀가장돕기안내	편집부
경전한귀절	38/ 정진	편집부
입방소감	39/ 광주에 다녀와서	념제
	40/ 새로운 출발	도정
원전번역	42/ 권수정혜결사문(2)	정원
	45/ 사십이장경 중에서	도빈
강원기금	47/ 강원발전기금 및 후원현황	편집부
편집후기	48/ 편집후기 및 후원안내	편집부
테이프보급	49/ 정화스님 강의테이프 보급(유식30송)	편집부





길(道)

어제는 나의 스승이 가신 이 길,
오늘은 내가 찾아 걷는다.
스승의 그림자는 흔적이 없고,
돌아봐도 텅비어 있는 이 길.
반김도 거부함도 없는 이 텅빈 길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나, 너, 그리고 그가 걷는다.

■ 사진.글 / 편집부

講院은 修行道場이고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다

3) 강원에서는 무엇을 주제로 공부하는가?

지운/강주

- 目 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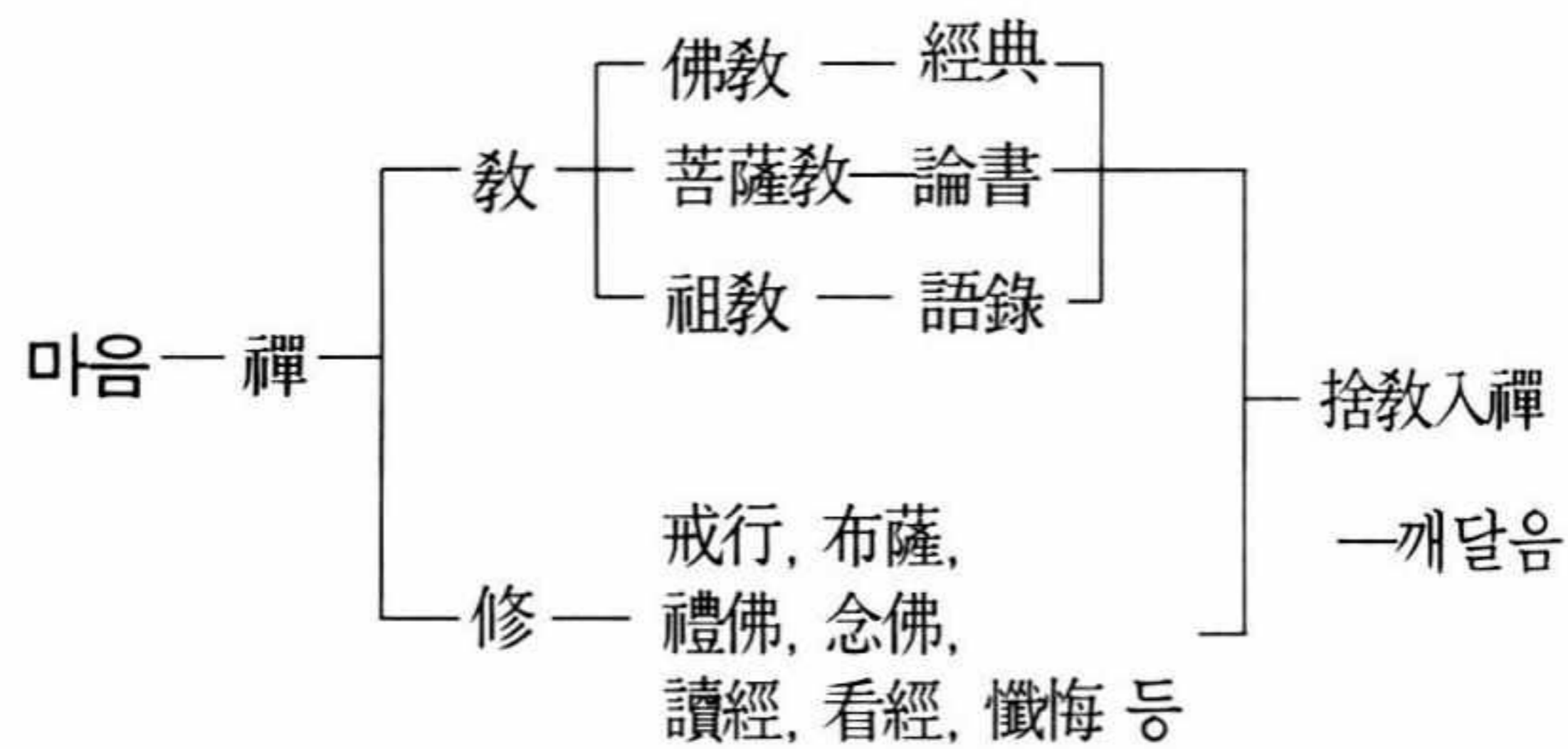
1.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修行道場이다.
2. 佛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3. 깨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觀照에 있다.
4. 강원에서의 교법공부로 과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 教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다.
 - (1) 법은 깨침의 법칙이다.
 - (2) 법은 수행체계의 원리이다.
 - (3) 教法은 깨닫게하는 因이다.
 - (4) 教法은 自心을 印可하는 道具이다.
 - (5) 捨教入禪
 - (6) 信心과 發菩提心
 - 2) '공부'라는 말의 意味는?
- ※ 3) 강원에서는 무엇을 주제로 공부하는가?
- 4) 看經하는 방법
- 5) 예불, 참회, 정근, 염불 및 모든 습의는 수행이다.
5. 그러므로 講院은 修行道場이며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이다.

1

강원의 공부는 마음을 주제로 한다. 이는 강원의 교과구성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강원에서의 공부가 마음을 주제로 하는 이유는 강원의 修行體制가 곧 깨달음을 위한 體系이기 때문인데, 깨달음이란 마음이 곧 法이요 부처임을 바르

게 아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달마스님은 관심론에서 “관심일법 총섭제행(觀心一法 摠攝諸行)”이라고 설하였다. 모든 門은 마음을 통해서만이 들 수 있으며 마음 밖에서 진리를 구하고 자비와 지혜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의 뿌리가 마음에 있으므로 생노병사 등 모든 문제의 해결은 마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러

기에 강원의 공부주제는 마음에 있으며 교과목이나 생활자체가 모두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강원의 공부체계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이처럼 강원공부에서는 마음을 닦아 깨닫는 방법이 모두 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선은 教와 修로 나누어지는데 教는 다시 佛教, 菩薩教, 祖教로 분류한다. 이 중에서 불교란 阿含經, 般若心經, 佛遺教經, 四十二章經, 楞嚴經, 金剛經, 圓覺經, 梵網經, 華嚴經 등을 말하는 것으로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이 경전들은 모두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된다.

특히 전통 교과목에서 능엄경은 아난존자가 사된 주문에 흘러서 마음이 미혹하게 된데서부터 시작되는데 특히 七處徵心 등은 마음을 주제로 하며 사마타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금강경에서도 수보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행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행이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받는 길이라 말하고 있으며 一切有爲法이 꿈, 환, 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음을 觀하는 수행법을 보여준다. 圓覺經은 圓覺을 주제로 하고 있어 역시 마음이 주제이며 사마타수행을 보여준다. 범망경은 戒가 心地임을 주제로 하고, 十重四十八輕戒法을 수행덕목으로 삼고 있으며, 華嚴經은 華嚴이라는 宗旨를 보이는데 여기에서 화엄이란 말 그대로 重重無盡法界를 표현한 말이며 또한 菩薩道 수행을 비유한 말이다. 즉 연꽃과 같은 花果同時의 頓悟頓修의 보살도 수행과 오얏꽃

과 같은 花果異時의 頓悟漸修의 보살도 수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 法界緣起의 모습이며 법계연기의 모습이 깨달음 그대로이자 참마음의 실상이 되므로 역시 마음을 주제로 하고 있다.

菩薩教은 中論, 唯識三十頌, 大乘起信論, 大乘六情懺悔, 淨心誠觀法, 金剛三昧經論 등으로 중론의 주제는 無自性空으로서 中道를 설하고 있고 중도는 涅槃經에서도 佛性을 第一義空이자 中道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불성은 마음을 뜻한다. 유식삼십송에서는 '唯識', 즉 마음을 주제로 하고 대승기신론은 一心을 주제로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雙修를 설하고 있으며, 대승육정참회문은 마음으로 참회하여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음을 설한다. 정심계관법에서는 마음을 맑힘에 있어 계율, 五停心觀과 보살행의 수행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금강삼매경론에서는 원효스님께서 經의 宗旨를 一味觀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금강삼매경은 대승기신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역시 수행과 本覺과 始覺인 마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祖教은 緇門, 書狀, 都序, 禪要, 節要, 冥樞會要, 六祖壇經, 禪家龜鑑, 普照法語 등의 어록으로서 역시 마음을 그 주제로 하고 있다. 치문은 조사스님들의 언행록으로 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된 업을 경계하는 글이며, 또 서장과 선요은 話頭를 참구하는 看話修行法을, 도서와 절요는 선종의 수행법의 특징을 가린 것으로 역시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명추회요는 宗鏡을 주제로 하는데 여기서 종경도 곧 마음을 말하는 것이며 육조단경은 무념의 깨달음을 말하고 있고 선가귀감도 마음 닦는 수행법과 깨달음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조사어록도 모두 마음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교의 경전, 보살의 논서, 조사의 어록 등 어느 교재든 모두 一貫되게 마음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마음을 주제로 하는 수행과 깨침을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듯 하지만 마음이라는 眞理자체에 대한 기술부터 진

리에 의한 깨침의 체험이나 경지, 그에 이르는 戒·定·慧 三學의 수행방법 등이 다양하고 광범하게 설해져 있다.

그러나 이 교법을 검증하고 체득하는 것은 戒·定·慧 三學이다. 이 三學의 모양은 圖示에 나타난 바와 같이 戒行, 布薩, 禮佛, 念佛, 讀經, 看經, 懺悔 등의 수행법이다. 이 강원의 수행법 가운데 戒行은 깨달음을 실현시키는 戒·定·慧 三學체계 중에서 계에 해당하는 실천수행법이다. 계는 행위를 통제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기본수행에 해당된다. 《佛遺教經》에서 설하듯이 계에 의하여 정과 혜가 생기기 때문에 계행은 마음의 고요를 가져다주는 수행법이 된다. 그 밖에 布薩, 禮佛, 念佛, 讀經, 看經, 懺悔 등은 다른 항목에서 자세히 논하려고 한다.

교과목에서 계율과 사마타, 위파사나, 간화선, 참회 등 마음을 관하는 廻光反照의 수행법을 설하고 있으며 강원의 수행법 역시 모양은 다르나 모두 회광반조의 수행법으로 되어있다. 강원의 회광반조의 수행법이란 바로 계·정·혜 삼학으로써 깨달음의 체계를 말하며 또한 사교입선의 체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禪지향의 교과목과 수행법이 모두 捨教入禪의 체제로 되어 있어 깨달음에 이르는 강원의 수행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강원은 마음을 닦아 깨달음(지혜와 자비)을 이루는 場이며 생활 그자체가 이를 실현시키는 수행방법인 것이다.

이처럼 강원의 교과체제나 수행체계가 일관되게 마음을 주제로 하고 있음은 조계종지의 불입문자 直指人心 見性成佛에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不立文字는 교법의 토론, 강론이 아닌 실천수행을 의미한다. 자신의 내부로 회광반조하는 데는 교법의 사상이나 철학이론이 필요없다. 교법의 사상이나 철학은 생각이므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치를 담고 있는 논리적

사고나 여러 가지 이치를 떠올리는 생각이 도리어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는 것을 妨害한다.

생각은 언어문자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내면의 마음을 사유하는 것은 불입문자가 아니다. 반대로 이러한 생각을 근거하지 않는 것이 戒·定·慧의 三學의 회광반조이고 不立文字로서의 戒行, 布薩, 禮佛, 念佛, 讀經, 看經, 懺悔 등의 수행법이다. 따라서 교법을 검증하고 체득하는 불립문자의 강원수행이 捨教入禪의 捨教이고 이 사교를 통하여 나타나는 마음을 바로 直指하는 것이 入禪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교입선의 수행체제 속에서 견성성불이 이루어지므로 강원의 수행체제가 곧 不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마음을 주제로 한 깨달음의 曹溪宗旨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2541년 10월 10일자 해인동문회보에 현웅스님의 '21세기와 불교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이 글에서는 서양식 교육체제를 도입한 승가대학을 현대식 교육이라 하고 전통강원의 교육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아 대학을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글중에서 "그런데 막상 이들을 교육시킬 교육방법은 천년전의 불교문헌과 서당식 강의방법이라는 웃지 못할 논리가 되어 일선 승가교육 현장을 휩쓸고 있다. 그 뿐인가 영어, 일어 등의 기본 어학은 물론이고 불교학개론 등 필수 교과목마저도 폐지되어 오직 전통이력 교과목만 서당식으로 전수하고 있는 것이 해인전통강원의 현주소이다. 마치 일제강점기와 해방후의 현대적 불교교육이 환속화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현대식 교육을 전통강원과 상반되는 세속화로 전락시키는 자들이 있어 승가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라고 한

부분에서는 강원교과목을 천년전의 낡은 것으로 보고, 강원교육 또한 서당식의 교육이라하여 승가교육이 오히려 퇴보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일선 승가교육 현장을 휩쓸고 있다” “오늘날의 현대식 교육을 전통강원과 상반되는 세속화로 전락시키는 자들이 있어 승가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라는 구절을 미루어 볼 때 어느 특정 강원에만 국한시켜 말한 것이 아니고 전국 강원전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강원교과목이 천 년전 낡은 것이므로 문제가 많은 것일까? 만일 이 인용한 글의 논리라면 경전이나 논서, 조사어록은 모두 낡은 것이라는 웃지못할 논리가 성립된다. 이는 아마 전통적인 교과목을 현대에 맞게 바꾸지 않고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서 파생된 듯 싶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급변하는 현실에 근거하여 교과목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강원의 원전과 강의는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고 만다. 그러나 과연 현실에 근거한 교제가 올바른가? 현실이 바뀔 때마다 교제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은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세속학문이나 기술을 배워야한다는 논리가 되며 다양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뒤떨어지지 않고 적응하여 살아남으려면 현실에 맞는 교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또 그 현실에 대응하여 세속을 지도하고 인도해 가려면 새롭고 다양한 불교사상이나 철학을 익혀야 한다. 그렇다면 경전, 논서, 어록은 현실대응에 부적합한 것일까? 부적합하다면 새로운 경전, 논서, 어록이 제작되어야 하는 진짜 웃지못 할 논리



가 성립된다. 그것도 급변하는 사회에 맞추어 계속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佛法은 不變의 가르침이다. 《梵網經菩薩心地戒品》에 “三世의 보살들이 이미 배웠고 장차 배울 것이며 지금 배우고 있는 바이니라”¹⁾라고 하여 佛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어 시대가 바뀌고 변하더라도 불변하는 것임을 설하고 있다. 물론 사회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알맞는 방법으로 隨緣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도에서 三世實有, 中觀, 唯識 등의 새로운 불교사상이 등장하고 오늘날에 이르렀지만 佛法의 理致는 바뀌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양한 불교사상과 철학을 현실대응에 활용한다고 하는 수연에만 집착하는 것은 현실대응을 知識으로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불변과 수연은 모두 마음의 현상이다. 觀을 통해서만이²⁾ 불변의 이치는 無分別智를 이루게 되며 수연의 현실대응은 중생구제의 後得智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³⁾ 따라서 변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불변의

1) 梵網經菩薩心地戒品講義 案 \ 釋性愚 강의 \ 송광사불교전문강원, p. 33.

2) 大乘起信論疏卷一 “初入修行不出二門 依眞如門修正行 依生滅門而起觀行 止觀雙運 萬行斯備 入此二門 諸門皆達”(高麗藏經 木版本 疏卷一 p. 十一幅前面)

3) 원효스님은 “依眞如門 止諸境相 故無所分別 卽成無分別智 依生滅門 分別諸相 觀諸理致 卽成後得智也”라고 하였다. (上同, 大乘起信論疏卷六 p. 四幅後面) 不變은 진여의 본성이므로 진여문을 의지하여 사마타觀의 止行, 수연은 생멸의 모습이므로 생멸문을 의지하여 위파사나觀의 觀行에 따라 각기 무분별지와 후득지를 성취한다.

진리를 알아 마음의 고요와 지혜를 개발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매달려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 원력을 세워 구제하는 것이 불교가 가야할 보살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세속에서는 지난 1980년도 중반부터 전세계에 교육개혁이 단행되어 국민의 평생교육을 제창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그 섭렵한 지식을 종합해 낼 수 있어야하며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야하기 때문이었다. 미래 정보지식사회는 지식이 바로 상품이고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평생교육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의 창출과 지식의 창고역할을 하는 장으로서 대학이 변모해야했고 이제까지의 백화점식 대학교육은 국가경쟁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대학마다 특수대학 특수학과를 신설하여 모든 지식을 종합해 내고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한 창의력을 키우기위해서 교육개혁에 몰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다양한 교과목에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다양하게 변모하는 현상만큼 배워야하기 때문에 대학체제가 필요적절하다고 주장 할 수 있다. 이것이 현응스님의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기에 대학의 학문체제에서처럼 승가도 현대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현실의 다양한 현상과 변화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보다는 근본을 추구해 가는 수행집단인 승가의 관점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현실의 현상만큼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하는 것이 지식이고 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하므로 대학의 교재는 다양한 지식과 주제에 맞는 概論書와 변화

에 따른 교재바꾸기에 힘써야 하고, 또 공부의 성취도 평가는 필기시험과 논문쓰기 및 발표가 주가 되어 학문의 발전을 추구하게 되므로 세월과 예불, 간경, 포살, 염불, 독경, 참회 등의 계·정·혜 삼학의 수행은 관심밖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대학체제의 한계이다. 이는 깨달음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의 지식이나 사상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검증하는 근거가 언어문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기시험, 논문쓰기, 발표 등은 언어문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知識의 본질로서 언어문자는 지식과 함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예를들어 찻잔을 찻잔이라고 인식할 때 찻잔이라는 지식은 찻잔이라는 이미지를 가진다. 찻잔이라는 지식이 찻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 지식은 찻잔이라는 지식이 아니다.

이처럼 지식은 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늘 밖의 대상을 향해 작용한다. 그러므로 현실의 여러모습과 변화를 감지하고 파악하는데는 지식만큼 유용한 것이 없다.

물론 지식이란 無常, 苦, 空, 無我, 眞如 등의 特相까지 인식하여 아는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그러나 이처럼 존재의 본모습을 知識化하였다더라도 어디까지나 이미지화 시켜서 식별한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이 지식의 체계인 학문은 어디까지나 相을 취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觀할 필요가 없는 相이란 여러 가지 불교의 思想을 의미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타나 있어 언어문자로도 얼마든지 이미지화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은 無相의 모습이기에 언어문자나 지식으로는 안된다. 마음을 대상으로 觀(看)하는 것만이 깨달음을 검증하는 유일한 길(戒·定·慧 三學)이다.

즉 지식의 학문체계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로지 마음을 주제로 하는 강원의 三學의 수행체계만이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4

그러므로 현대식 교육방법이라는 대학체제의 도입은 불교학의 발전에는 크게 기여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깨달음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강원을 대학체제로 바꾸게 될 경우 강원 학인스님들의 생활 자체가 깨지게 되어 깨달음의 기초가 되는 계율에 대해 무신경해 질 것이다. 막식막행이 성행하고 승속의 경계선이 무너져 포살, 예불, 간경, 독경, 염불, 참회 등이 무의미해지고 수행환경이 파괴됨에 따라 승가체제가 무너지면서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그 여파가 禪院 및 전체 僧伽에 두루 미치게 될 것이다.

현승스님은 “마치 일제강점기와 해방후의 현대적 불교교육이 환속화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현대식 교육을 전통강원과 상반되는 세속화로 전락시키는 자들이 있어 승가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라고 하여 현대식 교육을 세속화가 아닌 듯 말하고 있으나 도리어 일제강점기와 해방후의 현대적 불교교육이 환속화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히려 여기에 있다. 즉 현대식 승가교육의 융성함이 도리어 환속화를 부채질하는 원인이 된 역사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학위주의 교육, 즉 지식위주의 학문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론 서구의 현대적 대학체제를 유지하면서 강원의 삼학의 수행체계인 계행, 포살, 예불, 간경, 독경, 염불, 참회 등을 접목하여 시행하면 이러한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삼학의 수행체계를 살리다보면 삼학의 수행체계는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내향적이 됨으로 밖으로 相을 취하는 지식체계를 가진 대학체제를 버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체제도 다시 강원의 수행체계를 가진 승가체제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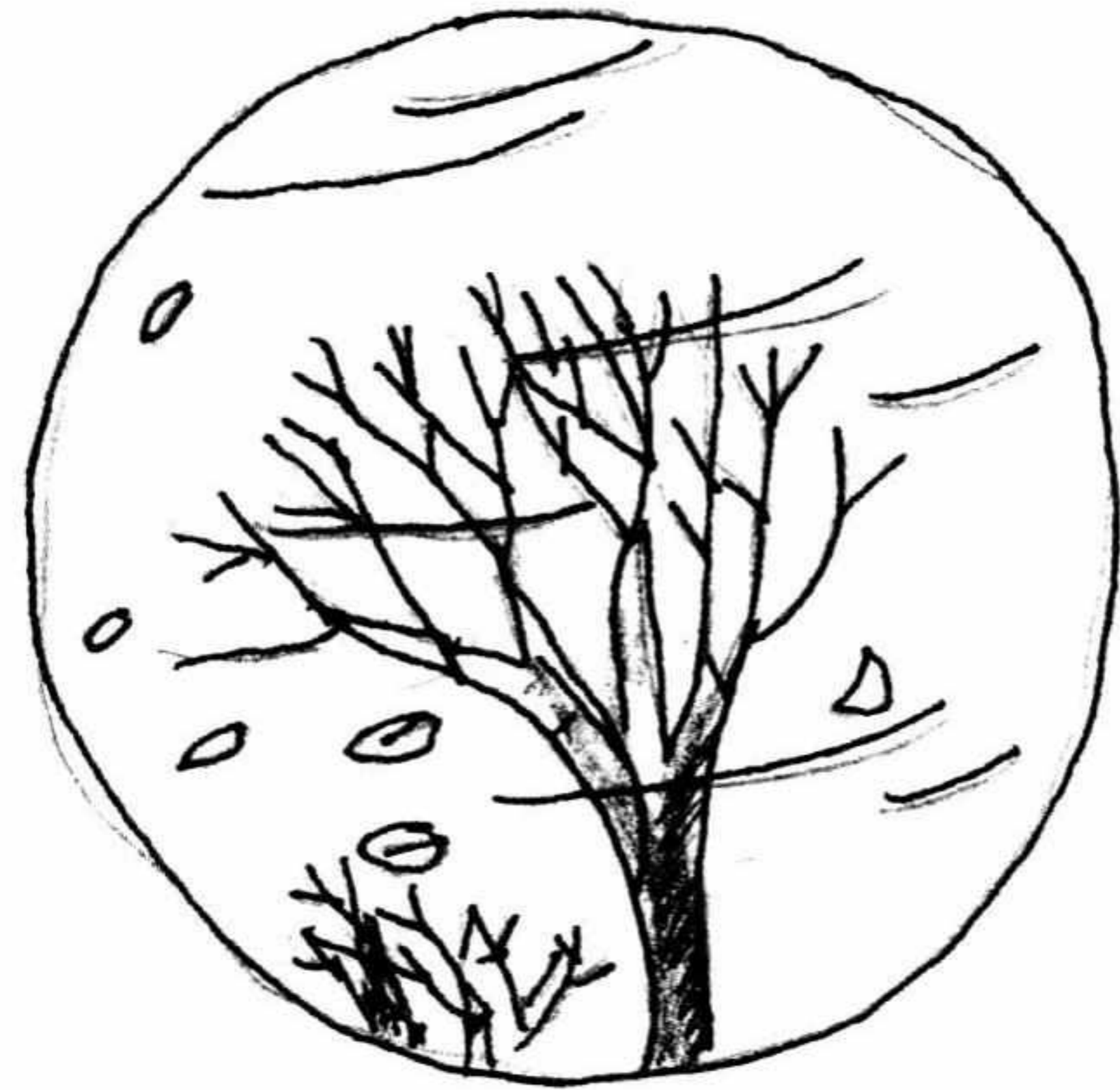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강원의 교재가 현실에 맞지 않는 낙후된 것이고 강의도 서당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이 문제는 식민지 경험, 전쟁, 대처비구싸움, 경제제일주의, 문화식민주의 등의 외적요인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전통과 역사를 돌볼 겨를이 없었던 상황에서 강원의 지식을 지체로 전환할 수 있는 三學의 수행체제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데에 있다. 작금의 대학체제인 현대식 교육방법의 도입을 주장하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본다.

그러나 《東語西話》上에서 中峰禪師는 “戒·定·慧의 세 無漏學은 나의 맥이라면 教宗과 禪宗과 律宗은 나의 신체와 같다. 즉 三武一宗의 廢佛 사건을 만났던 것은 내 몸이 병들었다가 이윽고 戒·定·慧 三學의 근본 맥이 뛰게 되자 살아날 가망이 생겨, 그 뒤 오래지 않아서 병은 사라지고 몸은 더욱 건강해졌다”고 설하고 있다. 또 中峰禪師는 “이러한 근본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 外護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맥과 원기가 깎이고 상하면 생명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짓이다.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발생하는 것을 모르는 짓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⁴⁾ 때문에 강원의 戒·定·慧 三學의 수행체계는 수행생활의 바탕이 되므로 새로운 제도나 세속의 체제를 도입하여 강원을 대학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다.

4) 선림고경총서 3. 藏經閣. 佛紀 2532년 9월. p.p. 40-41.

나의 행자 일기

정산(定山)/치문



나는 작년 9월초에 부산 범어사로 입산출가했다. 사회에서의 부도덕하고 혼란함을 떠나 착하고 인간답게 살고싶어서 이 승가에 발을 들여놓았다.

사회에서 보고, 듣고, 느낀 스님들의 모습은 언제나 고요하면서 어린애같고 모든 세속적인 생활을 버리고 사는 진짜 나에게 맞는 분들로만 생각됐다. 그래서 나도 그런 멋진 스님이 되고 파서 출가를 결심했다. 물론 힘들거라는 생각도 해보고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다. 세상에 안힘든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결심한 뒤, 드디어 출가하던 날, 서울에서 기차를 타니 범어사에 오후 5시경에 도

착했다. 처음 보이는 스님에게 출가하러 왔다고 하니까 원주실로 데려다 주었다.

원주실에서 입방원서를 쓰고 저녁공양후 예불할때까지 대웅전에서 절하라고 했다. 몇배를 했는지 청바지를 입고 안해보던 절을 하니 힘이 들었다. 저녁에 불후 바로 삭발하여 행자복으로 갈아입고 삼배하는 요령을 배운 뒤 행자실에 입방하게 됐다. 위로 세명의 행자님이 있었다. 모두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해서 무척 대단해 보였다. 하루동안은 후원에서 행자님들 일하는 것만 보고 생활에 대해서 숙지했다. 그렇게 시작한 행자 생활, 3일쯤되었던가? 일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명의 행자님이 나가 버렸다. 따라서 채공을 혼자 맡게 되었고 다른 한명이 공양간에서 일을 했다. 그날부터 나의 행자생활은 고달프기 시작했다.

4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게 되었으니 말할나위 없고 혼자 설거지해서 고생한다고 설거지를 도와주시던 보살님들도 어느 스님이 못하게해서 나 혼자 설거지를 하게 됐다. 나는 정말 화가났고 그스님의 속뜻을 알수 없었기에 너무 야속해서 싸우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었다.

그 때 행자실에 걸려있는 하심이라는 글자가 생각났다. 하

심 '마음을 낮추어라', '자존심을 버려라'. 그리고 일로스님께 서 해주셨던 말씀에서 '모든 것은 인과' 라는 말씀을 떠올렸다.

'그래 내가 전생에 저스님에게 저렇게 했었구나'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한달후 같이 있던 행자님 한분마저 떠나고 나 혼자 남게 되었다.

진짜 아쉽고 섭섭했다. 그래도 다행히 학인스님 한분이 나와서 공양주를 하시게 되었고, 그 스님께 공양주 일을 배웠다. 그러던 중 전에 병원에 입원했던 행자님 한분이 퇴원해서 채공을 맡고 나는 공양주를 맡게 되었다. 얼마후 새로 행자님이 한명 들어왔으나, 좀 신기가 있는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행자님은 우리를 심신으로 뇌고롭게 하다가 나가고, 설상가상으로 채공을 보던 행자님마저 지난 번 다친 곳이 재발하여 치료하러 가는 바람에 이번에는 혼자 공양간과 채공간을 오가면서 이틀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힘이 들어 보였던지 학인스님이 다시 나오시게 되었지만, 나도 병이 생겼다. 혼자 무거운걸 들다가 허리를 다쳤던 것이다. 정말 괴로웠다. 집생각 가족 생각이 많이 났다. 하지만 집으로는 갈 수 없었다. 큰 스님되서 오라고



하시던 어머님께 정말 큰 불효가 되는 것 같아서 차마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할 수 없었다. 병원에 통원하면서 치료받았으나 효과가 없어서 은사스님께 허락을 받고 일로(一露)스님께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됐다. 뜸 치료를 받고 몸이 많이 좋아져서 범어사로 돌아오기 까지 한달이 걸렸다. 하지만 섭섭하게도 그동안 행자는 한명도 안들어온 것 같았다. 그래도 이번에는 보살님들이 많이 계셔서 나를 많이 도와주었다. 보살님들이 너무 고마웠다. 이분들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결제가 끝나고 행자교육원에 가기 3주 전부터 한명 두명씩 행자님이 들

어오기 시작해서 나까지 7명이 되었다. 뿌듯한 생각이 들면서도 까닭없이 '왜 이제 왔는가?' 하는 야속한 마음도 함께 일어났다.

그때 들어 왔던 6명의 행자님이 모두 이번에 수계하고 나름대로 정진하고 있다하니 이분들이 안 나가고 있어준 것이 고맙게 생각된다.

모든 스님들이 힘든 행자시절을 겪었겠지만 나도 군대이상으로 힘들었던 행자시절이었다.

모든 행자님들이여!

하심하라!

부처님도 하심하셨고, 조사스님도 하심하셨네.

하심이 곧 인욕바라미이요,
하심이 곧 성불이라 하였다네.

해우소 이야기



경선/사집

‘비우고 또 비우니 큰 기쁨있네. 탐진치 삼독도 이같이 버려한 순간의 허물도 없게 하리라.’

화장실 문에 적혀있는 구절의 첫부분이다. 언젠가 도시에 사는 애가 밭에다 용변을 보다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사연인즉 도시애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잘 안씩는다 해서 그랬다나?

요즘은 시골애들도 가공식품을 안먹을리 없으니 현대의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하는 이야기인 듯 싶다.

옛날도 아닌 아주 가까운 시절

의 일이다. 시골집 화장실은 비만왔다하면 물이 스며들어서 일을 볼 때 똥물이 엉덩이와 심지어는 얼굴까지 튀어 올라와 중간에 끊고 옆으로 피하면서 일을 보던 때가 있었다. 요즘 시골집은 겉은 시골집이라 해도 안은 아파트를 연상케해서 짐짓 놀라게 한다.

침대 주방 세면장등, 갈수록 온돌방은 사라지고 동양인에겐 맞지도 않는 폭신한 침대며 베게등 서양사람들의 생활을 닮아간다. 하긴 요즘 사람들 얼굴이나 마음 쓰는 걸 봐도 동양적인 모습이나 옛 선인들의 마음씨 같은 것은 찾

아보기 힘들고, 사극이나 봐야 본토종을 찾아 볼 수 있으니 시대의 흐름이 빠른탓인가, 제행이 무상하기 때문인가? 영원한 것은 없다더니 요즘 시대 돌아가는 걸 보면, 부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출가전 송광사에 와서 가장 인상깊게 남는 것이 재래식 화장실이었다. 집에 돌아갈 때 이곳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한 것이 엇그제 같다.

지금도 송광사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잘 꾸며져 있다.

그 옛날 시골 사랑방엔 나그네

화장실이 있었다. 마실은 사람들에게 밤참을 많이 가져다 주어 일을 보고 가게하기 위해서 였다고 하던가? 거름이 귀하던 시절이라 개똥도 주워다 거름으로 썼다는데 요즘은 시골집도 수세식이 아닌집이 없는 듯 싶으니 무엇이든 자연에서 나온 것은 자연으로 돌려줘야 부작용이 나지 않는 법인데,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다시 한번 우리 선조님들의 지혜로운 삶을 돌아봤으면 한다.

요즘 절집에 바보만드는 상자(T.V)가 들어오고 세탁기 세제 등을 쓰고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

제작년 시애틀 경원사서 일이다. 개척단계의 절을 사형과 돌이 맡고있을 때, 혼자라도 실행하자 해서 따로 재래식화장실을 만들고 거름으로 썩혀 잔디밭을 밭으로 바꿔 거름 했던 기억이난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환경과 무슨 관계가 있겠나 싶겠지만 땅으로 돌아가 자연스럽게 썩으며 식물의 영양분으로 재활용되어야 할 쓰레기들이 재활용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물만 보존한다고 자연보호는 아니다. 물뿐만아니라 자연 전체가 무리없이 유지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연보호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일년에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 해도 한나라를 먹여살린다하니 부처님가르침의 실천이 더욱 필요한 곳인 듯 싶다.

자랑인 듯 싶지만 본인은 새시 주물이 들어오면 다른 분께 회향하고 거의 주워서 입고 신는다. 그러다 보니 무좀으로 고생도 했다. 지금은 발에 관심을 안두어서 그런지 깨끗해진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절에서 손님이 오면 음료나 주스를 내오는데가 많다. 그 좋은

생수를 놔두고 왜 그럴까싶다.

깡통이나 병은 쓰레기 생각해서 잘 먹지도 않지만 요즘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마음 아픈일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저 외면하고 살아가기엔 세간사에 무엇하나라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야만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을까 해서 외면해 버릴 수도 없다.

인간은 자연없이 살 수 없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며,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님을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때가 빨리 도래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해 본다.

‘신토불이(身土不二)’

나는 오늘도 재래식 화장실로 향한다.



백중 기도

화진(華眞)/치문



한달여 간의 여름 장마가 끝난 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치문반 하안거의 긴 장정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안거 동안의 공부를 점검하는 필기 시험과 강주 스님 및 강사 스님들과의 문답 시험도 끝나고 용운 스님의 동다송(東茶頌) 특강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안거 일정의 마지막인 7일간의 백중 기도가 남아 있었다. 하안거 해제 및 백중날에 맞추어 회향하게 되는 것으로 24시간 내내 7일 동안 강원 학인 스님들이 지장전에서 지장 보살 정근을 계속하는 것이다. 치문반에서 대교반까지 전 강원학인 스님

들로 일주일 간의 기도 시간일정이 잡힌 가운데 나는 사집반 정원 스님과 오후 2시-3시 사이의 기도를 담당하게 되었다.

수계후 약 6개월간 은사스님 절에서 생활할 때 법당에서 목탁을 잡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 되지는 않았지만 강원예 방부를 들인 후로는 법당에서 목탁을 처음 잡아 보는 지라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였다. 첫째 날, 오랜만에 목탁을 잡고 정근을 하니 박자도 맞지않고 목소리도 고르게 나오지 않아 불안했지만 둘째날부터는 안정되게 기도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새벽 저녁

예불후에는 전 강원학인이 참석한 가운데 30분간 전체 기도가 실시 되었다. 비록 새벽 저녁 예불 후지만 아직까지 한여름의 무더위는 많이 남아 있었다. 가사장삼을 수하고 30분간 정근과 절을 하고 나면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기도 마지막날 밤에 철야 기도를 해보자' 사실 나의 경우는 잠이 많은 편이라 강원예 들어 와서 거의 밤10시를 넘기지 못하고 잠에 떨어지곤 했었다. 기도 마지막날이 한달간의 하안거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

에 강원생활의 부담감도 없고, 철야기도를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해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드디어 기도 마지막날 밤 저녁9시 큰방 공사가 끝난후 바로 지장전으로 향하였다. 지장전에는 많은 보살님들이 각각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 보살을 부르며 절을 하고 있었다. 보살님들도 철야 기도를 계획하고 참석한 것 같았다. 목탁을 잡고 기도하는 스님뒤에 좌복을 깔고 절을 하기 시작하였다. 50분 절하고 10분 쉬다는 계획아래 시작한 절.

50분 절을 하고 나니 옷이 땀에 축축히 젖어 있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했으나 아직 신심이 부족한지 12시가 되니 벌써 다리가 떨려오고 잠이 오기 시작했다. 옆의 도반스님들과 보살님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흐트러짐 없이 절을 계속하고 있었다. 12시 40분쯤 되니 더 이상 절을 하기가 힘들었다. 지장전에서 밖으로 나오니 여름 수련생들이 대웅보전 마당을 크게 원을 그리며 경행을 하고 있었다. 수련생들도 오늘밤이 3박4일 수련 기간의 마지막날 밤이라, 곧 1시부터 1080배 절을



해야한다. 힘든 일정 이지만 수련생 개개인 들에게는 잊지 못할 하룻밤이 될 것이다.

내일이 보름이라 조계산 능선 위에는 둥그런 달이 너무나 밝게 빛나고 있다.

어둠에 싸인 산사,
절 마당을 돌고 있는 수련생,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밝은 달과 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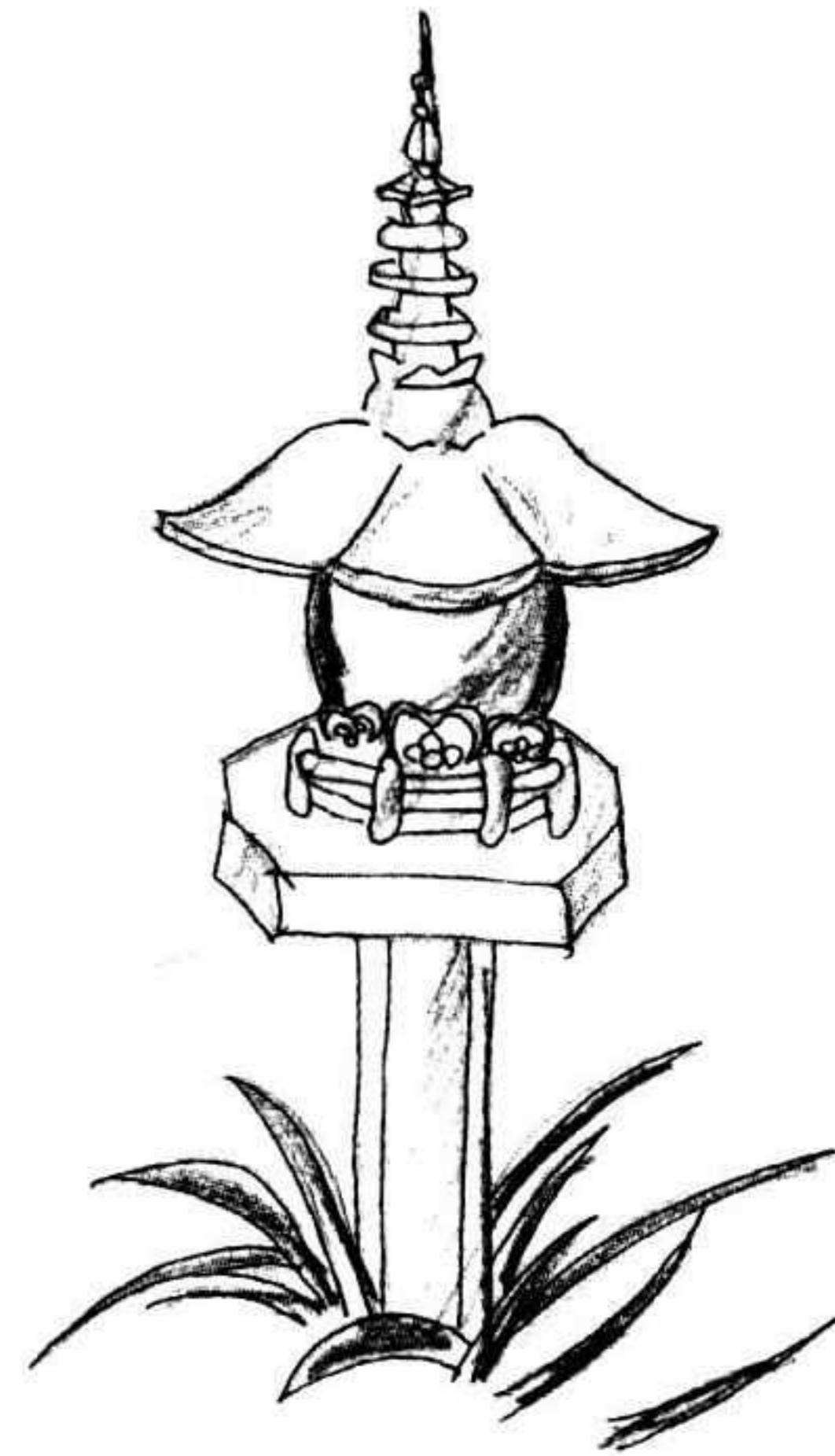
산 짐승의 울음소리,
지장전에서 일심으로 절을 하고 있는 스님들과 보살님들, 이 모든 것이 출가인이 아니고서는 맛볼수 없는 풍경이라!

1시부터 다시 절을 시작했으나

다리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다. 평소 절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도량석이 울리는 3시 까지는 끝까지 버텨야 겠기에 느린 속도로 절을 하였다. 3시 도량석을 알리는 목탁 소리에 마지막 절을 마치고 나 자신을 되 돌아본다. 오늘 밤에 흘린 땀 방울이 세속의 문은 때를 한 풀 벗겨내고 출가인으로서 앞으로의 생활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과연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벽 예불을 드리러 대웅보전으로 향하였다.

송광사에는 왜?

혜전(慧田)/치문



송광사에서는 지난 10월 3일 효봉 대종사 재(齋)일에 맞추어 수년 동안의 불사 끝에 성보 박물관을 개관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관람 할 수 없었던 성보를 언제든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절에 오면 그절(寺)의 역사나 문화재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특히 그 절에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가 있으면 눈길이 한결 더 가고, 특별한 사연이나 전설이라도 갖든 것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 가게 된다. 절에 와서 그런 것들을 보고 가지 않으면 왠지 헛걸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것은 현대의 사찰이 성역이면서 문화 공간이기 때문이라 그러다 보니 사찰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나 팸플렛 등의 자료가 풍부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다른 사람의 안내나 설명 없이 사찰 문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그 사찰의 역사와 전통 속에 녹아 있음을 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꼼꼼히 챙겨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들, 그 절(寺)과 호흡을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느낄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송광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대웅전 후면의 높은 석축 위에 선원인 수선사가 있다는

것이다. 불보 사찰인 통도사가 대웅전 뒤쪽으로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모시는 금강계단을 두고, 법보 사찰인 해인사가 대웅전 뒤쪽에 팔만 대장경의 판본을 보관하는 장경판고를 두고 있듯이, 승보 사찰인 송광사가 대웅전 뒤쪽으로 수선사를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둘째로, 송광사의 건물들은 화엄 사상의 영향으로 대웅전을 중심으로 화엄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에 따라 지어졌다. 그래서 처마 끝과 끝이 맞닿을 정도로 건물들이 붙어 있다. 옛날에는 사역(寺域)안에서는 비를 맞지 않고도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이런 건물 구조로 화재에 취약 했으리라.

셋째는 대웅보전이나 지장전, 승보전에 주련(柱聯)이 없다는 것을 들수 있다.

선(禪)을 종지로 삼아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不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을 으뜸으로 치던 옛 선사들은 사찰의 주련까지도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달지 않았다 한다. 소백산 부석사, 천등산 봉정사, 청아 보경사 등에 주련이 없다하니, 승보 종찰인 송광사에 주련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관음전, 설법전, 육감정은 제외.)

넷째로는 대부분의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웅장한 모양의 석탑이나 석등을 송광사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금당 중심의 선종 사찰이라서 경배의 대상인 탑(塔) 처음부터 없다는 말도 있고, 송광사를 둘러싼 주변 산세가 연꽃 모양이라, 연꽃은 물위에 떠있어야 하는데 석탑이나 석등등의 석조물이 연꽃을 무겁게 하기 때문에 석탑이나 석등이 없다 한다.

다섯째는 송광사를 흐르는 개울 위에는 덩그러니 석교(石橋)만 놓지 않고 누교(樓橋)형태로 다리를 만들어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운치 있는 정자와 같이 만들었다.

그외에 대웅전에는 과거의 연등불, 현세의 석가모니불, 미래의

미륵불의 삼존불과 함께 지장, 보현, 문수, 관음 보살 입상을 함께 모신 것은 다른 사찰과 비교되는 색다른 점이리라. 그리고, 스님들의 생활하는 면에서는 백여명이 넘는 스님들이 향시 큰방에서 바루 공양을 하는 것은 요즈음의 사찰 환경에서는 드문일이리라.

그리고 공양을 준비하는 후원에는 정인(淨人)들이 전혀없이 별좌 스님이하 행자님들의 수고로 준비된다. 요즈음 대부분의 사찰에서 거의 필수품이 되다시피한 텔레비전이나 선풍기를 송광사에서는 볼수 없다. 또한 커피나 음료수 자동판매기도 볼수 없다.

또한 송광사에서는 삼경후 산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모양 보다는 송광사에 살고 있는 스님들의 여법(如法)하게 노력하면서

사는 모습, 예불 공양 운력에 신심을 다하고 계행(戒行)을 청정히 하는 모습,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수행자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송광사의 참모습이 아닐까!

송광사의 중건주이신 보조국사 스님의 비석에는 소 걸음 호랑이 눈(牛行虎視)이란 말이 있다. 육중한 몸을 서두르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정진해 가는 소의 걸음걸이와 무엇인가 볼 때 고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돌려 정면을 응시하는 호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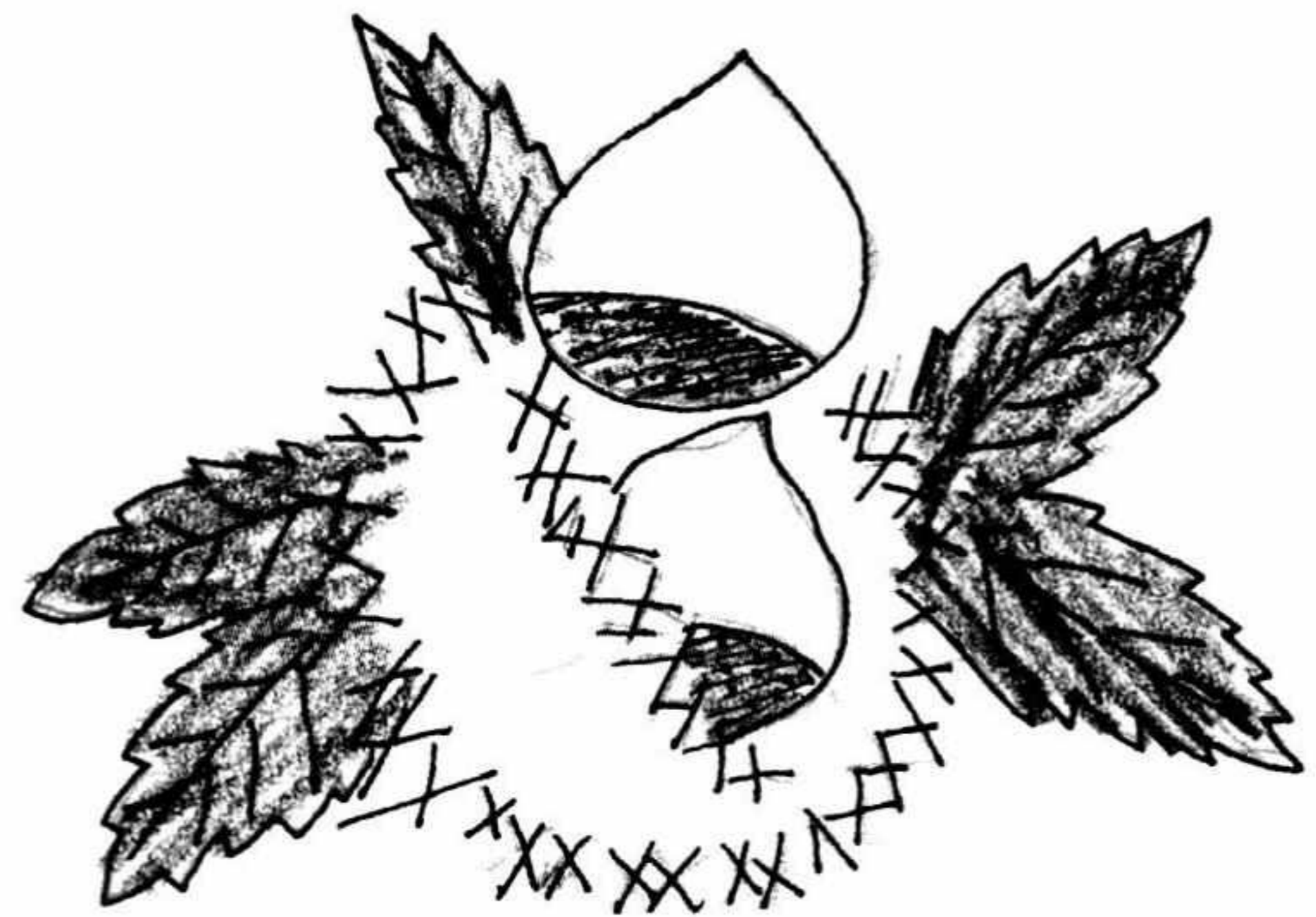
이것은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실천 수행하는 목우가풍(牧牛家風)을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 아닐까.

이와같은 송광사인의 진지한 삶의 태도에서 송광사만이 가진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벌써 가을인가?

설각/치문



눈이 오던 날에 난 처음 송광사에 왔다. 그 날의 눈오는 분위기는 다른 곳과 매우 달랐다. 그러나, 벌써 단풍이 드는 가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와 있으니 겨울도 멀지 않은 듯 싶다. 이런 날씨는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계절이라 했던가?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몇몇 도반들이 보이질 않는다. 도반들의 흔들림은 어느새 나까지 흔들어 놓는다. 처음 강원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다.

난 이제 군대를 간다. 지금까지 무얼 했는지 반성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짐을 한 적도 많았으나 자주 바뀌었다. 작년 이맘때에도 대단한 혼란을 가졌는데 또 되풀이 되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처음 치문반스님들은 신심이 대단한 도인들이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중생으로 보이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내마음탓일까?

“터는 연꽃 모양, 도인만 살 수 있는 곳, 치문반은 많으나 상반은 적고 운력은 상당히 많다네” 난 처음 들어 왔을 때 단단한 각오를 했었고 상황에 맞춰 물처럼 흘러가는 성격이라 어느새 도반스님들 생각과 동화되어 왔다. 하지만 처음 들어 왔을 때 갖고 있던 굳은 다짐은 사라지고 망상들만 더욱 치솟는다. 이 고비를 넘겨야 정상이 보일 듯한 데 아득하기만하다. 이 좋은 날씨에 이 중생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가. 어떻게 살아가려 하는가? 강원 4년은 금방 간다고 했던가? 그러나 이 가을은 우리 심리를 혼란케 하는 것 같다.

난 이제 군대를 간다. 지금까지 무얼 했는지 반성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짐을 한 적도 많았으나 자주 바뀌었다. 작년 이 맘때에도 대단한 혼란을 가졌는데 또 되풀이 되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처음 치문반스님들은 신심이 대단한 도인들이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중생으로 보이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내마음탓일까?

이 가을을 계기로 치문반은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다. 방학동안에는 참 좋은 듯 했으나 얼마 안되어 짜증만 났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다. 정말 알 수 없다. 나 자신을…….

이런 나 자신을 되돌아 본다. 이 가을같은 마음이 연속된다면 과연 승려생활을 오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보통 속퇴를 많이 한다는 이야

기를 들을 때, 혹은 100명꼴에 1명이 남을까 말까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 했는데 정말 말로만 떠 다니는 이야기는 아닌 듯 싶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대했고, 그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부족한 점이 많기도하다. 1년 동안 송광사에서 많은 것을 배웠



다. 하지만, 나같은 사람이 절에 남을 수 있을까 걱정도 해본다. 송광사는 아름다운 절이다. 운력도 많다.

아직은 송광사 강원은 괜찮다는 느낌이 더든다.

송광사에 오기전 공부를 많이 했었다. 대학에 가고 절에서 기

도하는 것보다 강원에서 습을 배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에 강원 들어 왔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허덕이고 있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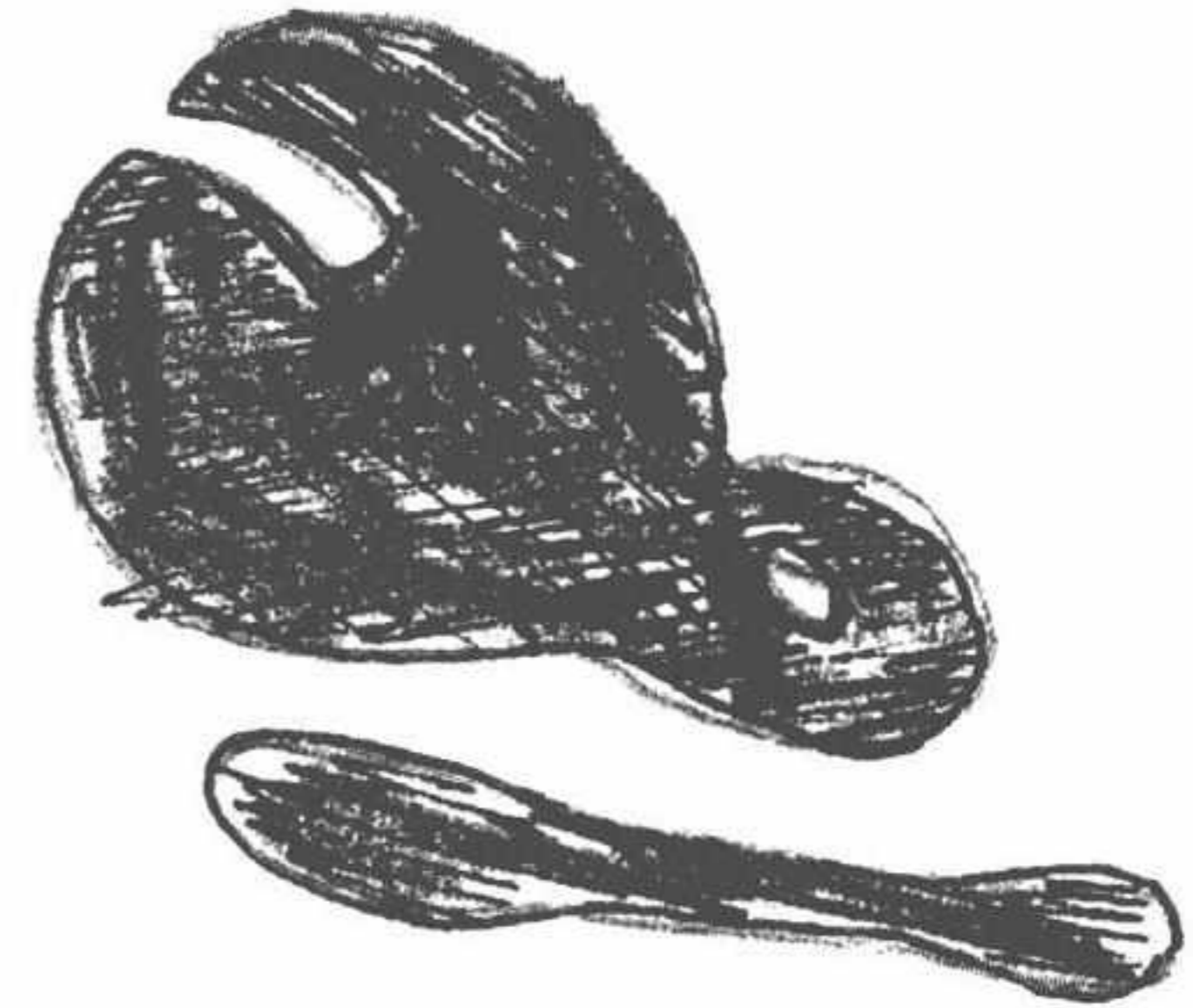
저녁예불을 마무리하는 참선 시간에 앞으로 조심할 것을 생각

한다. 그러나, 예불후에 생각은 또 헤맨다. 정말 수행은 힘들고 나에게도 아직 먼 것 같다.

내겐 승려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앞선다. 어떤든 이번 산철은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보다 깊은 사고력을 준 계절이 될 듯 싶다.

기도

본연(本然) / 대교



얼마전 '식물의 신비생활' 이라는 책을 읽었다.

주된 내용은 인간의 감정을 식물이 알아차리고 반응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식물을 대하면 식물도 호의를 갖고 좋아하며 미운 감정을 가지고 식물을 대하면 식물도 위축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이용하여 식물의 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으며 식물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이 책에서는 미국에서 영국에 있는 식물의 병을 치료했다고 했다).

이 책을 다 보았을 때 인간의 마음은 설명할수 없으며 무변, 무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내용은 경전에도 있다. 부처

님 시대의 비구가 나무밑에서 좌선을 하는 데 나무의 목신이 방해를 하여서 정신집중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 뵈고 사정이야기를 하자 부처님께서 자비관을 말하면서 그 나무 밑에 가서 자비관을 하라고 권했고 그 비구는 나무 밑에서 자비관을 하였던 데 한 철 공부가 끝날 때 주변에 있는 목신들에 둘러 쌓였으며 스님이 없을 때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다가도 스님께서 자비관을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냈다고 한다. 2600년 전의 이야기가 현대의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방학때의 기도는 강당 생활하면서하는 3번째 기도였

다. 처음엔 스님은 참선 공부 유일의 공부인 줄 알았고 처음 출가했을 때만해도 선방스님이 되어야 선정삼매에서 노니는 줄 알았다. 또, 기도라 하면 기독교의 기도와 보살님들의 기복적인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던 데 강원에서 경전을 공부하면서 차차 인식이 바뀌어져 갔다.

첫 번 기도는 어떻게, 무엇을 하는 줄도 모르면서 도반스님과 함께 건봉사 에 가서 일주일간 했었다. 사분정근을 오로지 절로만 하였는데, 힘들게 일주일 기도를 마치고나니 강당에서 있었던 자질구리한 잡념은 지워지고 새로운 각오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두 번째 기도는 충북 제천 무암사에서 용기를 내어 목탁을 쥐고 염불하면서 21일간 하였다. 염불은 못 하지만 정성껏 한다는 심정으로 하였다. 다행히 무암사 주지스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래 많은 조언을 해 주었다. 그러나, 몸이 적응을 못 해서 하루 법당에서 10시간 지내고 나오니 몸이 녹초가 되어있었다.

지난 방학에는 태안사에 가서 21일 기도를 하였다. 법당이 홀로 뚝 떨어져 있어 혼자서 주변 눈치 안 보면서 기도를 하였는데 이력이 붙어서 그런지 먼저 번보다 힘도 덜 들고 여유가 생겼다. 염불에 여유가 생기면서 염불 계송의 내용이 마음속에 와다오면서, 아! 그렇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금일신중(我今一身中) 내가 지금 한 몸 가운데에 곧 끝없는 몸을 나타내어

즉현무진신(卽現無盡身) 곧 끝없는 몸을 나타내어

변재삼보전(邊在三寶前) 두루계신 삼보전에

일일무수례(一一無數禮) 날 날이 무수한 예를 올립니다.

원하옵건대 사생육도 법계에

유정의 다겁생에 지은 죄업장을 내가 지금 머리 숙여 참회하오니 멸하기를 원하옵니다.

원하옵건대 모든 죄업장이 다 소멸되고 세세생생에 항상 보살도를 행하길 원하옵니다.



원하옵건대 이와 같은 공덕으로 일체에 두루 미치어 우리와 모든 중생을 더불어 반드시 극락국에 태어나 함께 아미타불을 보며 다 함께 불도를 이루길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다 소멸되

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송하는 계송은 말 그대로 혼자 잘 살겠다. 혼자 도 이루겠다는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한 발원과 참회였다. 법당에서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변의 나무와 다람쥐 개미 등의 유정무정물에 까지 발원과 참회의 감정이 전달될터이니 신심이 안 나겠는가!

어떤 스님의 말처럼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고 하면 신심이 더 난다'는 말이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소와 법당 그리고 포행길에는 법당에서 기도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하루종일 배어 있었다.

이렇게 천일기도를 한다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옛 어른 스님께서 중이 천일기도 한 번하면 평생살 복을 짓는다는 말이 실감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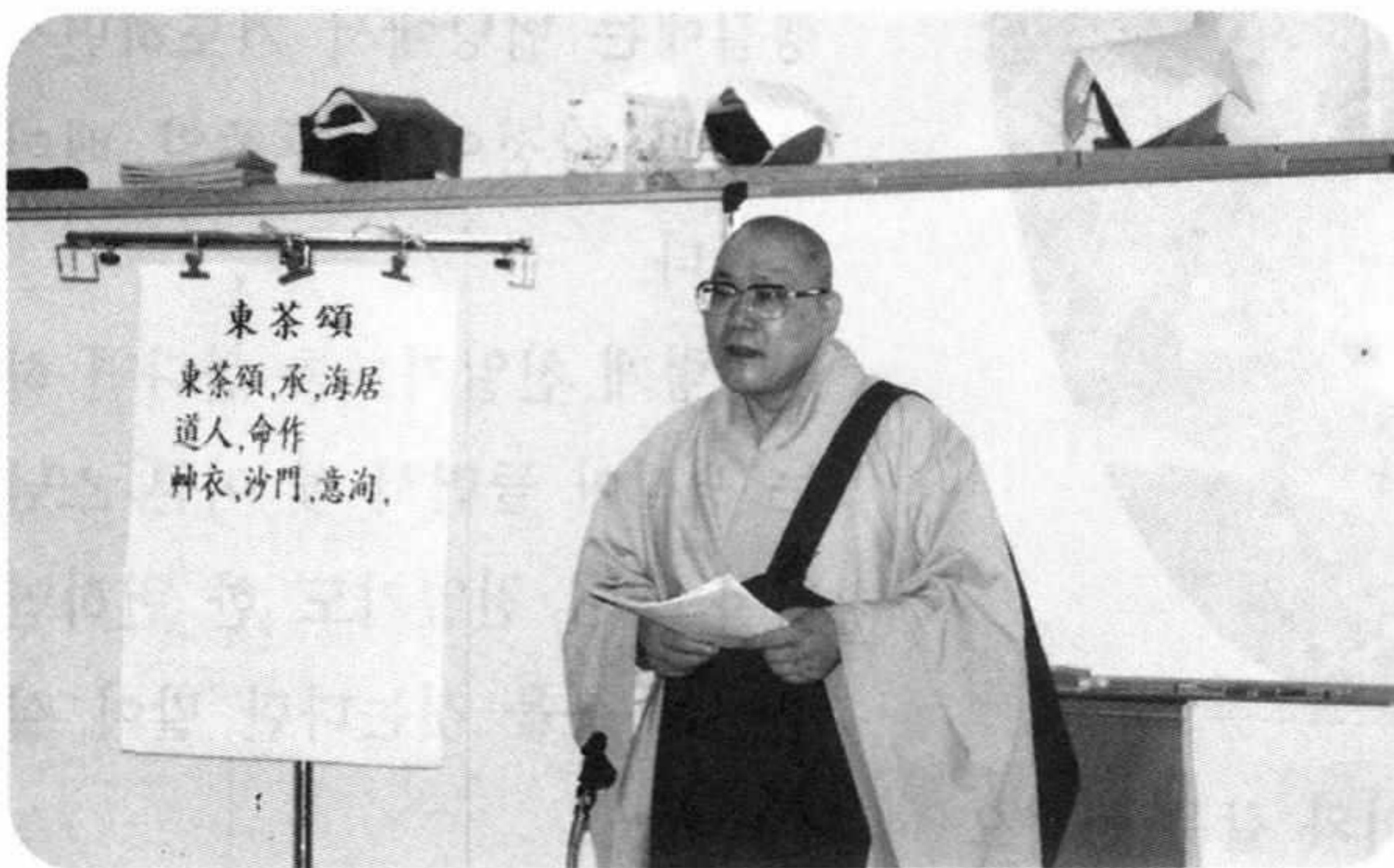
하지만 그렇게 21일이란 시간을 보냈건만, 다시 강당에 돌아와보니 기도한 마음은 아련해지고 대교반이라는 권위와 시비(是非)속에 묻혀있는 나자신을 발견하고, 기도를 더 해야 하는 당의성을 느낀다.

학보를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8월 10일~17일 — 하안거 백중기도
 하안거를 마감하는 우각분절을 일주일 앞두고 시작된 철야 지장기도가 우각분절이자 해제일인 17일에 영가천도재를 끝으로 회향되었습니다. 기도의 회향과 함께 한달간의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10월~15일 — 동다송 특강
 하안거의 마지막 특강으로 동다송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초의문화재단의 이사장이신 용운스님께서 하루 4시간씩 동다송 및 차에 관한 이야기로 꾸며주셨습니다.



8월 16일 — 탁발
 광주 금남로와 양동시장일대에서 북한동포돕기성금 마련을 위한 탁발이 있었습니다. 비록 경기침체의 여파로 모금액은 적었지만 강사스님 및 학인들의 정성을 보태어 전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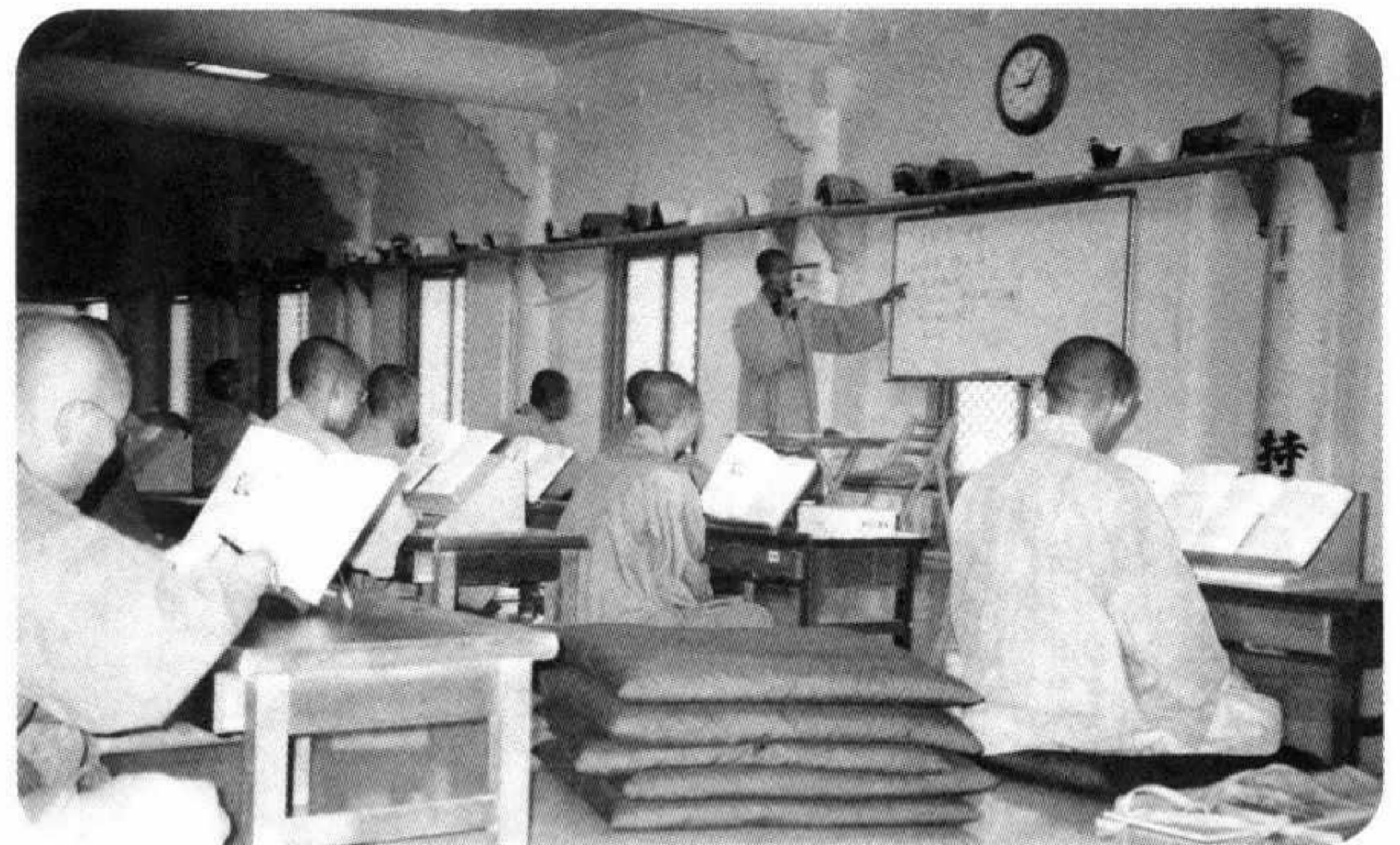
9월 20일~27일 — 유식특강

가을산철의 첫강의를 정하스님께서 받아
 신경 및 유식30송으로 시작해 주셨습니
 다. 교선을 두루 갖추신 스님의 유식강의
 로 학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신 뜻깊
 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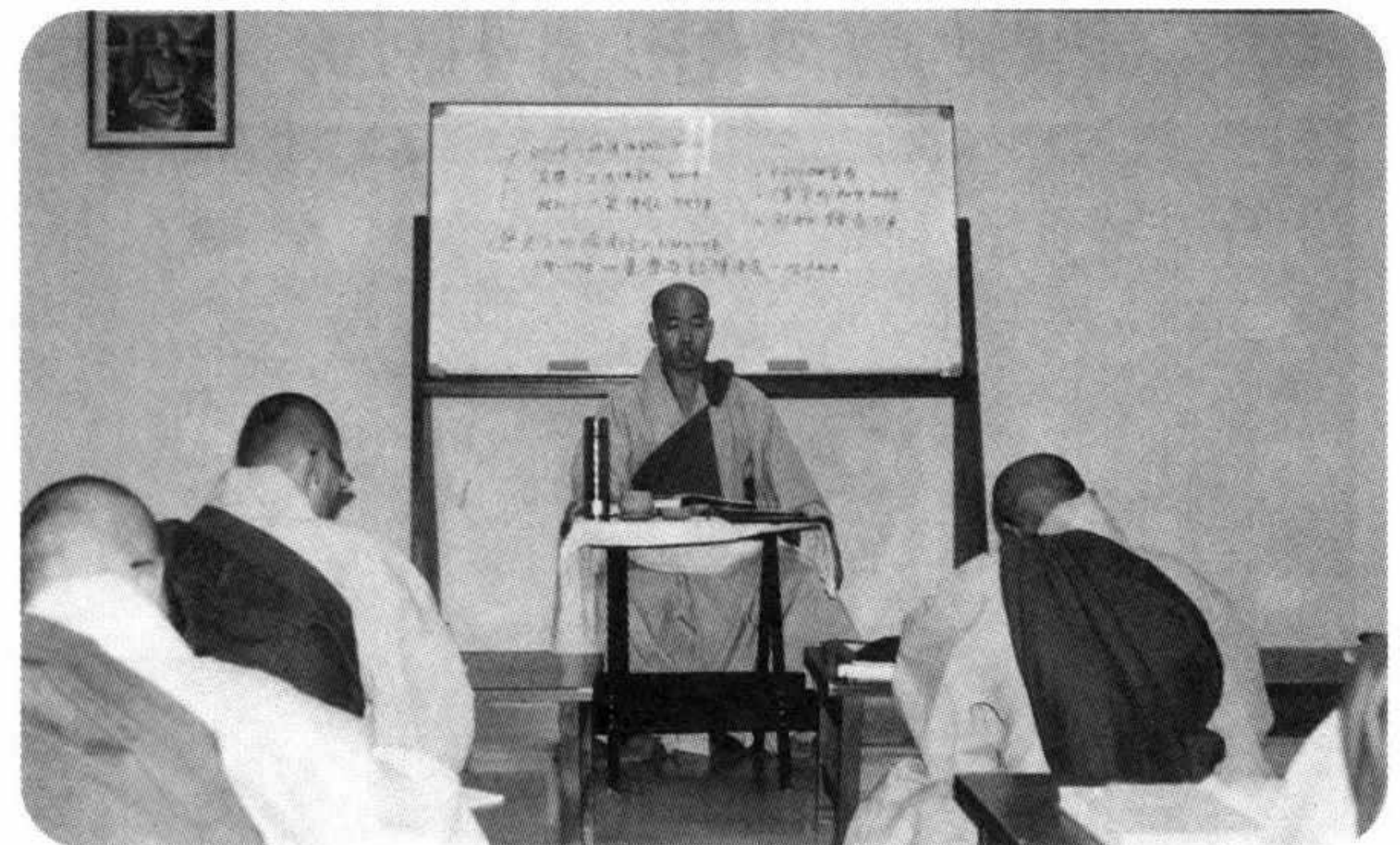
9월 28일— 중국어 특강 개설

가을 산철들어 중국 스님(법명 : 중지)을
 모시고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스
 님께서는 북경 불학원에서 공부하시다
 강주스님의 초청으로 저희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말이 익숙
 치 않아 많은 대화는 하지 못하고 있지
 만 그래도 느낌으로 통하면서 서로 웃곤
 합니다. 앞으로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강
 의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사미율의반 개설

본 강원에 처음으로 사미율의반이 개설
 되었습니다. 현재 아함경 사미율의등의
 강의를 받고있으며, 본강원의 후반기 신
 입방부는 계속해서 사미율의 반에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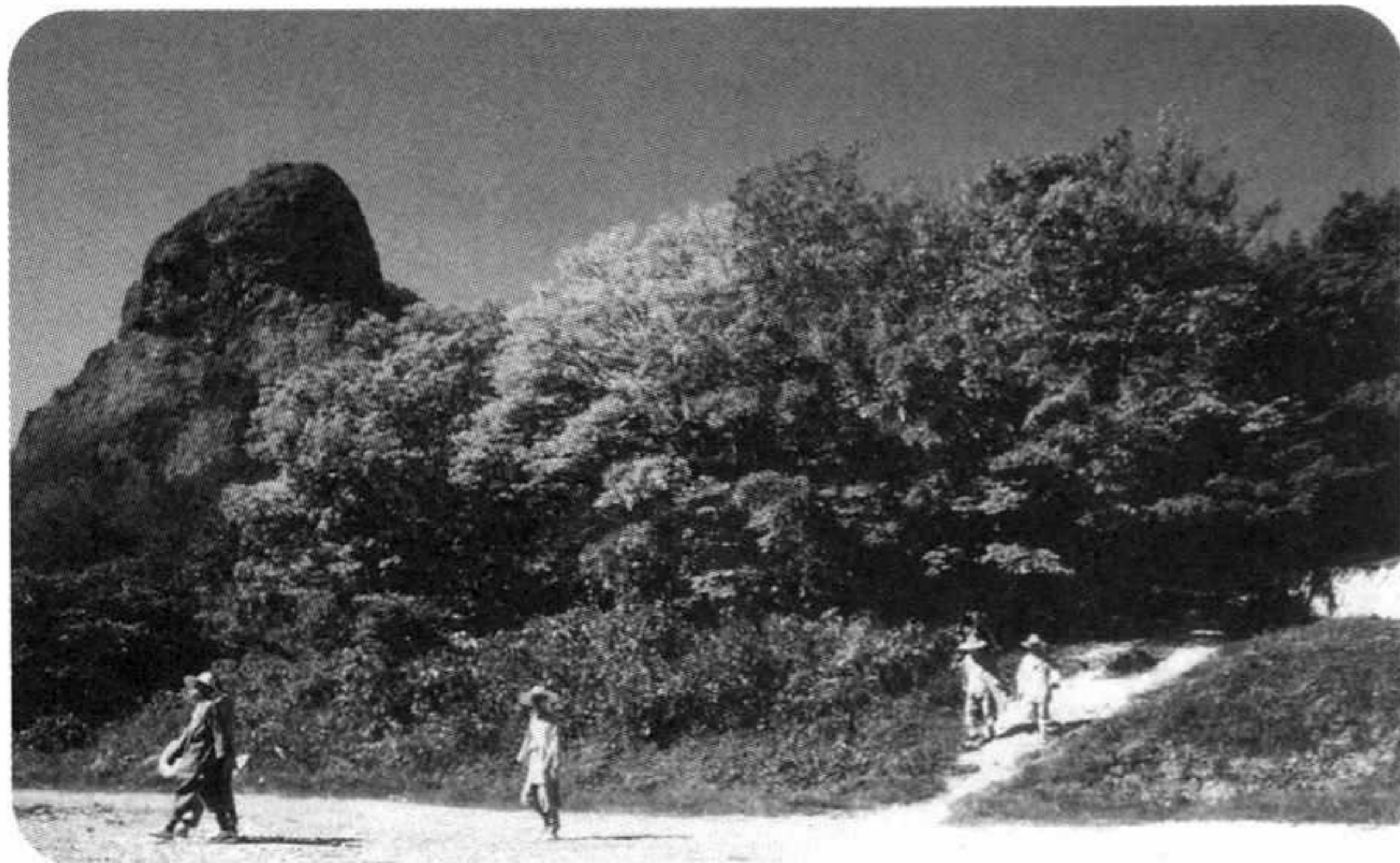
10월 3일 — 효봉사님제

효봉사님 열반 31주기를 맞이하여 추
 모재가 송광사 효봉영각에서 많은 사부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되었습니다.





10월 3일 — 송광사 성보박물관 개관식
8년여 동안 준비해온 성보박물관의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개관한 성보박물관에서는 송광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들을 만나볼수 있으며 매월 1,3주월요일 및 눈.비오는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9시부터 17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10월 6일 — 가을산철 산행
가을 산철 산행을 고창 선운사 및 변산반도의 내소사등을 참례했습니다. 오랜만에 맑아 보는 바다기운이 시원했습니다.



10월 11일 — 보조사상연구 학술회의 참석
보조사상연구원의 제10차 학술회의가 서울 법륜사에서 있었습니다. '대각국사의천의 불교사상과역사적 위치' 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회의에 강원외 사립,사교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10월 20일 — 티벳불교 특강
티벳의 조펍스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티벳에서 19년간 수행하다 한국에 온지 1년7개월이 된 스님의 강의는 스님의 불교관에 대해 1시간 정도 강의하고 나머지 한시간은 질의 응답으로 꾸며졌습니다. 2년도 안되는 기간에 익힌 유창한 한국어 솜씨로 기대이상의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11월경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가불자도 성불할 수 있다

현장(玄藏) / 대원사 주지

‘성불합시다!’는 인사말일 뿐.

재가불자도 성불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진실로 성불을 추구하는 재가불자가 이 땅에 얼마나 존재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귀의한 뒤에도 세속적인 이익과 명성에 탐착하고 기껏해야 선행과 공덕에 힘쓸 뿐이다. 그건 종교의 성직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요가를 오랫동안 수행한 한 사람이 한국의 절을 찾아 여러 스님들을 만나고 와서 한 말이 지금도 메아리되어 울리고 있다.

“한국 스님들은 모두 ‘스님’에 만족하고 있더군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스님이란 부처되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만나 본 스님들은 모두 부처되기를 구하기보다는 스님이라는 상(相)에 집착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요가수행자의 한 마디가 오늘의 나를 경책하고 부끄럽게 한다. 오늘의 나는 진실로 부처의 길을 닦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교의 이름을 빌어 세속의 업을 쌓아가고 있는가?

출가해서 수행한다는 스님들도 진정으로 해탈을 추구하는 이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가정과 직장에 얽매이고 갖가지 세상사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재가불자들의 성불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황당한 일이다.

그러나, 말법의 세상사에서는 재가의 남자가 출가한 승려보다 신심이 조금 깊고 재가의 남자보다 재가의 여인의 신심이 조금 깊다고 하였다.

왜 성불해야 하는가?

대다수 불자들이 의례적이 행사나 세속적인 욕망에만 탐착하는 것은 마음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만 성장하게 되면 장난감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된다.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 등은 어른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다. 인간의 의식이 고양되고 감각이 정화되면 온갖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모든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 가듯이 인간의 삶 또한 영원한 행복을 향해 흘러 가야 한다. 영원한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삶의 세가지 목적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이니

모든 고통을 여의고 당당한 즐거움을 얻는 일이고, 둘째는 전미개오(轉迷開悟)이니 어리석음을 돌이켜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 일이며, 셋째는 지악작선(止惡作善)이니 악행을 그치고 선업과 공덕을 이루는 일이다.

진실로 인간 삶의 고통과 죽

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 성불을 발원하는 불자라면 지나간 뉴스의 인물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보기 바란다. 6.25 때 중공군의 포로로 잡혀 43년간을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조창호 소위'를……. 매일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고통스런 일과에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했던 그는 43년간 단 하루도 탈출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실토했다. 매일 되풀이되는 인간의 삶을 알아버린 현자들은 해탈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 앞선 과학기술과 학문을 배워오듯이 티베트인들의 삶에서 해탈의 길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는가를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 국민이 동참하여 천년 이상의 세월을 진력해왔기 때문이다.

티베트의 불교도들이 그들의 최고 성지 성산 카일라스를 순례하는데 오체투지의 예배로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30년을 순례에 바칠 수 있는 열정은 무엇일까? 그것은 윤회 속에 살아온 수 천, 수 만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미래로 끝없이 계속되어가는 중생의 존재를 생각하는

연유이다.

그럴 때 금생의 삶이 기꺼이 순례의 삶, 수행의 삶이 되는 것이다.

“공덕과 선행은 윤회하는 세계의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달마대사의 가르침이나, “해탈과 열반을 발원하며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탐욕과 무지의 독한 술에 취해 사는 중생들에게 내리치는 장군죽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진하고자하는 열망은 간절해도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도반과 스승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말법의 오락악세(汚濁惡世)에서야. 번뇌는 끝이 없고 죄업이 한량없는 범부중생의 삶에서 성불을 기약하는 것은 차라리 죄송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 말세중생과 범부중생들을 위하여 유일한 성불의 한 길을 열어 놓았으니 바로 정토성불이다.

어떻게 성불하는가?

모래알을 한 줌 움켜쥐었다 퍼면 많은 모래알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고 손바닥안에는 약간의 모래만이 남아 있음

을 보게 된다. 문득 지나간 삶을 돌이켜 보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 버린 모래와 같고 앞으로 남은 세월은 손바닥에 남은 약간의 모래와 같다.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이제 얼마남지 않은 삶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확립해야 한다.

이 세상의 형태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다이며 형태 없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허공이다. 인간의 삶을 통하여 가장 큰 이익과 공덕을 이루는 것은 바로 '나무아미타불'을 소리 내어 부르는 일이다.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편안함을 느끼듯이 마음이 마음의 자리에 안주할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아미타불의 청정국토,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원하고 아미타불의 거룩한 명호를 부르는 일은 방황하는 인간의 마음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중국 당나라의 한 화가는 말(馬)그림을 무척 잘 그렸는데 그는 다음 생을 기다리지 않고 말이 되어 버렸다. 뱀그림을 잘 그린 명나라의 승려 도치는 살아 생전에 뱀의 몸으로 바뀌고 말았다. 불자들이 부처님 세계를 마음속에 그리고 부처님의 명호를 간절히

부른다면 결정코 부처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인도의 마명, 용수 등의 대조사와 중국의 천태, 영명 등의 대선지식, 한국의 원효, 의상 등의 고승들이 한결같이 정토왕생을 발원하고 정토수행을 널리 권장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대승경전에서 270부의 정토왕생을 설법한 것은 무슨 연유일까?

중생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여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지만 부처님이 정토왕생을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속이거나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염불을 오래하다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날이 온다. 중생의 식견으로 불경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중생이 성불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부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허황된 말에만 현혹되기 때문이다.

성불에는 승가도 재가도, 어떤 구별도 있을 수 없다.

자신을 냉철히 돌이켜 본 사람이라면 이 사바세계에서 자기 수행으로 완전한 성불을 성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지를 애써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정진에 다소 힘을 얻고 걸림없는 변재를

얻었다 해도 견혹(見惑)과 사혹(思惑)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한 생사에 다시 떨어지게 된다.

격생즉망(隔生即忘)이라, 생이 한 번 바뀌면 입태(入胎), 출태(出胎)에 다시 어두워져서 중생의 삶이 되풀이 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범부 중생들은 정토에 왕생하지 않으면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면할 수가 없다. 사바세계는 탐욕과 원한, 무지로 이루어진 세상으로 욕망과 죄업으로 빠져들게 하는 힘이 강한 곳이다.

극락정토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청정한 국토이므로 부처님의 서원만 믿고 염불하면 번뇌와 죄악의 몸이 그대로 왕생하여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성불하게 된다. 불교의 정수는 대승불교에 있으며 대승불교의 핵심은 정토불교에 있다. 정토불교를 통하여 중생들은 비로소 구경성불을 성취하고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와 보살행으로 모든 생명을 불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한국불교에서는 여성신도를 '보살'이라 호칭하는데 이는 세계 어느 불교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한국불교의 큰 특징이다. 이는 원효대사로부터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린 정토불교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중생을 도와주기 위해 정토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이세상에 중생의 몸을 받아 돌아온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염불'할 때 이미 극락의 사람이고, '보살'이라고 불릴 때 극락에서 파견나온 자비화현임을 각성해야 한다.

성불에는 승가도 재가도 어떤 구별도 있을 수 없다. 성불의 원을 세우지 않는다면 불자된 무슨 기쁨을 얻을 것인가!

사생육도 윤회하는 모든 중생이 다겁생에 지은 죄업 없애기 위해아미타불 큰 서원에 귀의합니다.

저희들의 일체죄업 청정해져서 생생토록 보살의 길 걷게 하소서.

나 - 무 - 아 - 미 - 타 - 불



지리산 천황봉의 일출



보일(寶日)/사집

해제 방학을 맞아 어디로 만행을 갈까하고 망설이다 지리산으로 가기로 했다.

전에도 몇 번 갔었으나 수려하기로 이름난 칠선계곡을 보고자 하였으나 번번히 여건이 맞지 않아 포기하곤 했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남원에서 마천 가는 버스를 타고 마천에 도착하니 오후 3시경.

추성리에서 벽송사 가는 차편을 알아보니 버스는 없고 마천에서 택시를 타고 가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벽송사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추성리에 다시 나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 망설이게 됐고, 또 승복을 입고 민박을 한다는 것도 내키지 않는터라 백무동에서 천황봉을 오르기로 했다. 그렇게 산을 오르는데 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백무동행 버스를 타고 백무동에 도착하니 오후 4시경.

초행길이고 한 시간 가량의 야간 산행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국립공원 길이라서 잘 닦여 있으리라는 확신이 섰기에 용기를 내어 출발하였다. 생각대로 길이 잘 나 있었으며 어려운 코스도 별로 없었다. 얼마를 오르니 화장실과 식수대가 나오고 좀 더 오르니 능선이 나타났다.

여기까지가 1시간 40분가량.

계곡에는 어둠이 물들고 햇살은 어느덧 산 봉오리에 어깨를 드리우고 있다.

소나무가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낙엽이 지나가고, 길이 지나가고, 그 위를 지나가는 객이라!

시계를 보니 7시. 어둠이 깊게 배어 온다. 걸망에서 랜턴을 꺼내 불을 밝혔다. 보살님들 얘기대로라면 한 시간은 더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어디서 마이크에 실려 오는 유행가 소리가 들려 온다. 장터목 산장이 멀지 않았다는 표징이었다. 조금 더 가니 불빛이 보이고 산장 주위에선 텐트를 칠 수 없다는 안내방송이 들려 온다.

산장에 도착하니 7시 10분. 3시간 10분이 걸려서 도착한 셈이다. 산장에 들어서니 40명 가량의 남녀 등산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8시 30분이 되니 산장지기가 점호 및 산장사용료, 침낭사용료 5천원을 징수하고 지켜야 할 간단한 수칙과 천황봉까지 소요시간이 약 50분 정도이며 해 뜨는 시각이 6시라고 알려 준다. 숙인들 틈에 끼어 잠자리에 누운 나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진다.

눈을 뜨니 새벽 4시30분 평소보다 한 시간 가



량은 더 잠을 자서 그런지 몸이 개운하다. 여기 저기서 모두들 바쁘다.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짐을 챙기고 걸음이 다른 사람보다 느리다며 먼

저 출발하는 사람, 나도 그들과 더불어 예정보다 조금 일찍 출발하였다. 앞의 랜턴 불빛을 쫓아 불을 켜고 고사목 지대를 지나고 통천문(通天門)을 지나 정상에 오르니 해뜨기까지 20분이 남아 있다. 아침바람이 너무 차갑고 추워서 걸망에서 옷가지를 꺼내 꺼입고는 괜히 일찍 올라왔나 망상을 떨며 주위를 둘러보니 중산리쪽의 마을 불빛이 보이고 개가 짖고 닭이 우는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온다. 그리고, 바로 발밑 바위사이엔 작은 텐트가 하나 쳐진 사이로 몇몇 사람이 아직 침낭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다. 어느새 뒤따라 올라온 등산객들이 야호소리를 질러대니 자고 있던 보살님들 3명이 놀라 부끄러운 듯이 일어났다. 젊은 처사님들은 주인공들이 40대의 보살님들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한다.

드디어 일출.

붉은 해가 구름바다위로 머리를 내밀고 운무는 춤을 추어 실타래같은 머리를 풀어 헤치며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장관이다. 천황봉은 일출도

멋있지만 주위에 운무가 연출하는 갖가지 환상적인 그림이 더욱 멋있다. 운무가 걷히며 점점이 나타나는 운무위의 섬, 섬은 어느덧 산자락으로 변하고 산자락이 변하여 비단 병풍이 펼쳐지는 모습은 한 폭의 동양화다. 그러나, 오늘은 살아 움직이는 운무가 너무 짙어 한 시간 가량 지체하였으나 그 멋을 만끽하지 못하고 뺄속까지 파고 들어오는 한기때문에 칠선계곡을 따라 하산하기 시작했다.

칠선계곡은 계곡도 가파르지만 등산로가 계곡을 가로질러야 하기에 비가 조금만 와도 아주 위험하다고 한다. 한참을 내려오니 계곡의 물소리가 들린다.

맑고 투명한 물.

한량없는 세월을 얘기하듯이 깊이 흠이 패여진 돌들을 살포시 휘감으며 떨어지는 물줄기, 크고 작은 폭포와 돌, 사람의 발길이 덜 닿아서 그런지 지금까지 가본 계곡중에 비길곳이 없을 듯 싶다.

두두물물이 부쳐요 두두물물이 부쳐님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 느낌은 왜일까? 이 순간만은 자연과 내가 하나인 것 같다.

시간과 공간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다음에 다시 한 번 가고 싶다.

부석사 여찬



무념(無念)/사집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집을 꼽으라면 어느곳을 꼽을수 있을까?

누가 내게 물어 본다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영주땅 부석사를 꼽겠습니다. 4년전인가, 그때 온 나라에 문화유산 답사열풍을 몰고 왔던 유홍준교수의 '나의문화유산답사기'를 읽고, 부석사 성지 순례를 꿈꾸어오다가 드디어 시절인연이 도래하여 이번 여름 해제 방학을 이용해 부석사를 순례하기로 했습니다.

영주터미널을 빠져나간 버스는 늦여름 길가에 즐비하게 늘어서서 익어가는 사과밭을 지나 갑니다.

창밖의 풍경은 따사롭고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농촌의 현실속에서 안으로는 얼마나 곱았을까 생각하면 입맛이 씹니다.

방학때 바깥에 나올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갈비집을 비롯한 음식점들이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국민 소득 1만달러라는 허망한 이름아래 모두들 먹고, 마시고, 노는데만 정신을 쏟는것만 같습니다. 부석사 아랫마을에서 일주문까지는 완만한 비탈길로 길 옆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사과나무가 줄지어 있습니다. 파아란 하늘과 빨강계 익어가는 사과열매가 선명한 색상대비를 이룬 것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한참을 서서봅니다.

일주문에 이르면 완만한 비탈길은 점점 가팔라 집니다. 또한 부석사가 산지에 자리잡고 있어 석축과 계단이 많은데, 천왕문에서 범종에 이르기까지의 계단들은 일렬이 아니고 약간씩 그 축을 달리합니다. 그 계단 앞에 있던 건물들도 축이 약간씩 다르게 진입하여 시각이 다양하게 변하는 역동



적인 공간구조를 이룹니다.

범종각을 지나면 아름다운 안양루가 바라보입니다. 밑에서보면 안양루의 팔작지붕이 활짝편연꽃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이 당당하고도 안정감있는 모양새는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인 나에게도 감동을 주고 감격케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무량수전이기에 다른 말은 안겠습니다. 그리고 부석사의 백미는 무량수전 앞에서 바라본 장쾌한 소백산맥.

아아! 그 가슴벅참.

나는 한동안 망연히 서있기만 했습니다.

이땅의 사찰들이 명당아닌 곳에 자리잡은 예가 없지만 명당이라는 곳은 부석사를 두고 한말같습니다. 도량에 들어선 것만으로도 신심이 절로 납니다. 부처님께 인사드릴려고 범당문을 여니 일반적으로 진입하는 정면쪽으로 불상을 모시는 우리나라 전통절집과는 달리, 불상을 동향으로 배치하고 내부의 열주(列柱)를 통하여 이를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불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장

엄하고 깊이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무량수전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했습니다.

무량수전을 나와 부석사 창건설화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선묘낭자를 찾아보았습니다. 의상스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과 그 깊은 사랑에도 무소의 뿔처럼 홀로 당당히 걸어 가신 의상스님을 생각해 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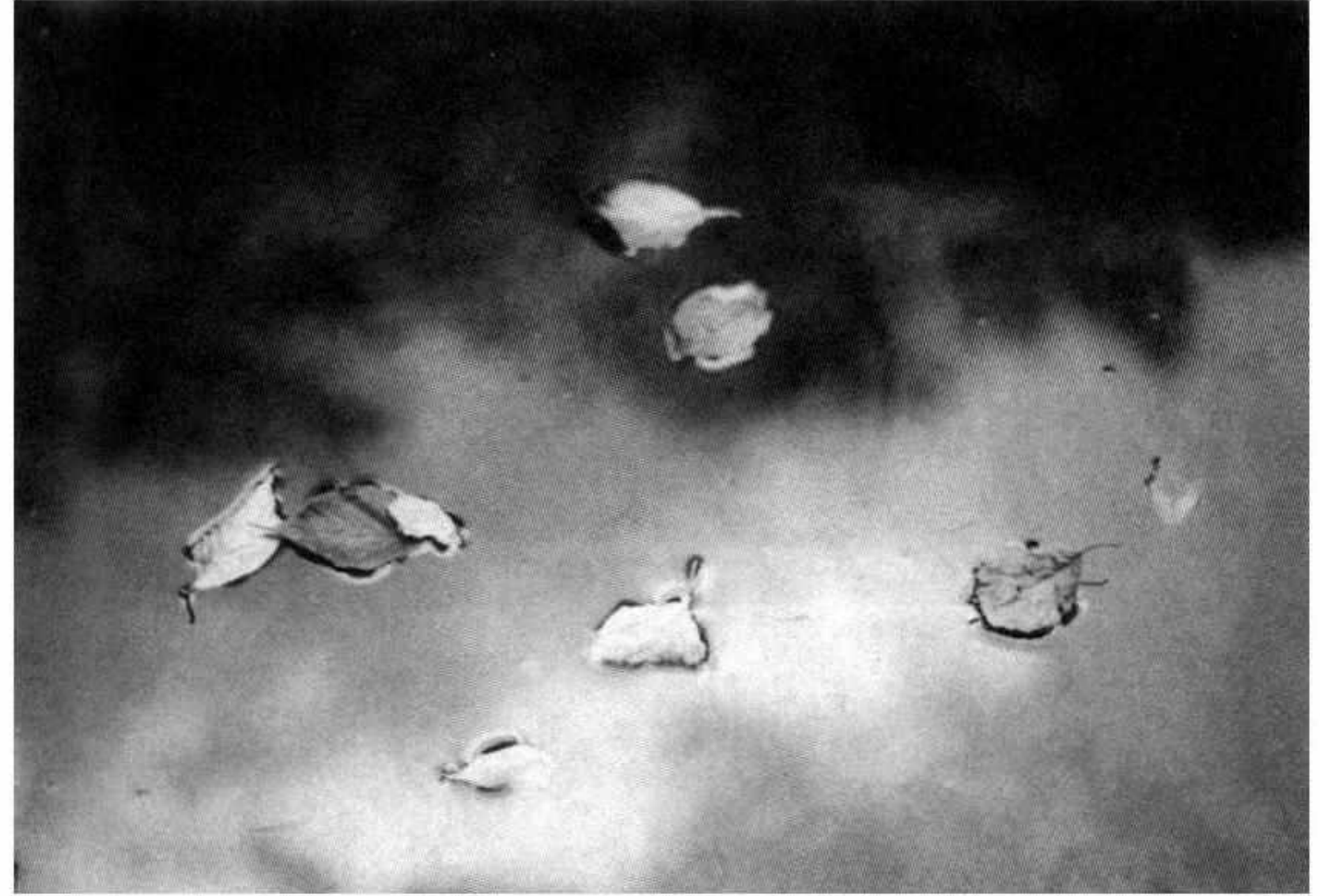
무량수전 오른쪽에는 많이 훼손된 상태인 삼층석탑이 있고 이 석탑을 지나 산죽나무 오솔길을 돌고 돌아 조사전에 이르니 의상스님께서 심으셨다는 선비화가 있습니다. 우리 송광사의 보조국사께서 꽃았다는 고향수처럼 의상스님께서 '그 싱싱하고 시들음을 보고 나의 생사를 징험하라' 했다는데 그 나무가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어서 신비스럽기만 합니다. 다만 보호한답시고 쇠철망으로 쳐놓아서 보기에 안쓰러웠습니다.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에 의상스님이 창건했다 합니다. 내가 아직 화엄경을 보지 않아 화엄의 그 깊고 오묘한 세계를 모르겠습니다만, 가람의 배치가 화엄세계를 건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합니다.

저녁 예불후에 밤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별을 바라보며 밤이 깊도록 무량수전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내 짧은 글솜씨로 부석사의 아름다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시 인연이 닿으면 이 아름답고 고즈넉한 도량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茶修行에 관하여 (2)

- 강 의: 지운(智雲)/강주
- 자료제공: 禪茶一味會
- 자료정리: 편집부



앞에서 차 수행법을 세 가지 초점 중에서 두번째까지 이야기 하였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차를 마실 때 느끼는 첫맛을 감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차 맛의 변화를 알아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초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차를 마실때 여러 가지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수행방법으로 간화선이 있죠. 간화선은 화두를 관할 때 생각이 일어나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화두만 관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요즈음 남방에서 수행하는 방법으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일어난 그 생각을 알아차리면 그 생각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서에 맞는 것은 역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간화선은 화두를 참구할 때 일어나는 생각을 내버려 두는 것인데 차를 마실때

계속 생각이 일어나면 그대로 내버려두고 차 맛의 변화를 관찰해 가면서 그 속에서 첫 번째 차 맛을 주시해 가면 됩니다. 생각은 연기와 같아서 향을 쫓으면 연기가 피어 오르듯이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렇더라도 차 맛을 음미만 하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세 번째의 요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의 요점에서 처음 느껴지는 맛을 감지하는 것은 마음의 평정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매수행방법중의 하나로 그러한 상태는 번뇌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두 번째의 요점에서 맛의 변화를 관찰하다 보면 잠재되어 있던 번뇌가 드러나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세 번째의 요점은 생각이 일어나면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맛의 변화만 계속 관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청량감이 몸 속에 펼쳐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사람에게는 아주 쾌활하고 명랑하고 화통한 면이 있는 반면에, 어느 때는 감정이 격해져서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번뇌가 축적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차 맛의 변화를 계속 관찰해 가다 보면 잠재된 그러한 문제들이 생각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면서 허공으로 연기가 사라지듯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수행을 하다보면 누가 비난을 한다거나, 기분 나쁜 경험을 한 것이 잠재하지 않고 전부 사라져 버립니다. 차 한 잔으로 인해 자기의 삶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된 경험은 소중한 것입니다. 등줄기가 시원해진다는가, 땀이 흐른다는가 등등 오래 마시다

2) 그런데 왜 맛의 변화를 관찰하는데 잠재되어 있던 번뇌가 일어날까요?

보면 온 몸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대로 내버려두고 계속 차 맛의 변화만 관찰해 나가십시오. 우리 차를 다 같이 마시면서 그런 경험을 해봅시다.

질문 : 첫 번째 요점의 “처음 느껴지는 맛을 감지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느껴지는 맛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 : 처음 느껴지는 맛이란 딴 생각하지 않으며 관념으로 보지 않는 맛을 말합니다. 딴생각하면서 마시면 처음 맛을 느낄 수 없고 또 관념으로 맛을 느끼는 것도 처음 느끼는 맛은 아닙니다.

맛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지만 딴 생각과 관념이 없으면 계속 처음 느끼는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맛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없고 미래의 맛은 오지 않았으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맛이란 현재 이 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딴 생각이 일어나면 맛을 못느끼거나 관념으로 맛을 보는 것은 처음 맛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가려서 진정한 차맛을 느낄 수 없는 것인데 여기서 관념이라고 말한 것은, 처음 느꼈던 좋은 맛을 차를 마실 때마다 생각해서 계속 그 맛을 느껴볼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관념은 지나간 과거의 차맛을 느끼는 것이므로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맛이 됩니다. 차를 마실 때 이 과거의 맛을 현재로 이끌어 와서 지금 느끼는 맛과 비교하게 되어 취사선택하게 되며 분별심을 조장

하여 편파적이고 고집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직 느끼지 않은 미래의 차맛까지 이미 복사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념으로 느끼는 이 두 번째 맛이 기준이 되어 관념의 맛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질문 : 차를 강원도 백담사에서 밤새워 마셔 보았는데 차를 배우기를 차는 3잔으로 나누어 마신다. 첫 잔은 맛을 보고, 둘째 잔은 향기를 맡고, 셋째 잔은 빛깔과 잔의 생김새를 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답 : 보통 그렇게 하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차를 들었을 때 감각을 느껴야 하고 차 향기를 맡으면 향기에 초점을 맞추고 맛을 보면 맛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마음을 놓치지 말고 알아차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첫 번째 느끼는 맛을 감지하는 것이 되고 차 색깔과 향기와 맛 등 변화를 자세히 주시해야 합니다. 집중을 하면 지나간 맛, 지금의 맛이 비교가 되면서 맛의 정체가 無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승기신론》에서 이르기를 “觀이란(위빠사나) 生滅인연을 관찰하는 것이며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이다.”라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빛깔, 향기, 맛 이 세가지를 잘 주시하면 분명히 구분이 되고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마시면 집중이 생겨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차를 통한 수행입니다.

질문 : 분별한다는 것과 관(觀)한다는 것과空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 앞에서 생멸 인연을 분별해 낸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분별하는 것과 위빠사나 속의 분별은 성격이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분별해내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知識을 가지고 분별해 냅니다. 예를 들면, 찻잔과 茶를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어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별에 속합니다. 지식을 통해 분별해 아는 것은 찻잔이란 지식, 그리고 차의 지식의 각각 다른 이미지로 분별해 아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실체로 느껴져서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여 아는 것을 분별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위빠사나속에서 변화를 관찰해가면서 분별해 낸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찻잔과 차의 이미지가 다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찻잔과 차가 함께 前刹那가 後刹那로 변하는 과정에서 전찰라의 모습이 후찰라로 바뀌어 변화하므로 전후가 다르다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로 인하여 찻잔과 차의 정체는 실체가 없어 순간순간 空함을 보게(觀)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분별하여 관한다는 것은 찻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이 가거나 부서지는 無常함이 있고, 茶는 끓여 마시면 차의 모양이 바뀌어 가는 무상한 존재이므로 실체가 空하다는 같은 속성이 있음을 아는 분

별이므로 이 분별은 각기의 존재가 서로 통한다는 것을 아는 분별입니다. 생멸인연을 분별해 낸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기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와 같이 차 맛도 전찰라의 맛과 후찰라의 맛이 다름을 분별하면 차맛이 무상하여 실체가 없는 공함을 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 분명히 하나가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지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나 직관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분별해내는 차이점은 이미지가 개입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미지를 근거해서 분별하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 觀을 통해 하는 것은 이미지를 근거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 일본은 차 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차 문화와 우리 차 문화를 간단히 비교해 주십시오.

답 : 일본 차 문화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이야기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일본 차 문화는 매우 형식화 되어 있습니다. 다구 놓는 위치, 간격, 먹는 방법 등 모든 것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님들의 차 마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차수행법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 자기가 만지는 찻잔, 향기, 빛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주시하는데 있습니다. 형식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하는 것이 차 수행법

의 특징입니다.

질문 : 제가 출가하기 전에 아는 스님을 한 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무려 5시간에 25잔 정도 마셨는데 차를 마시는 양에 대하여 여쭙보고 싶습니다.

답 : 양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 상태, 그 때의 분위기, 기분, 상황에 따라서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밤새도록 마시는 분을 뵈 적도 있습니다. 차에 대하여 매료된 사람은 7-8시간은 보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차의 양이 아니라 맛에 대한 요점을 잡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차를 마실 때는 자기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차를 마시고, 맛을 느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주시할 수 있는 관찰입니다. 맛과 말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마음에서 보고 듣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듯이 기분이 좋고 몸 상태가 좋으면 많이 마시게 되죠. "7번까지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했는데 그것도 그 때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녹차는 만드는데 과정에서 바로 비비기 때문에 비비면 결이 생겨서 발효가 중지되어 향기가 3-4잔이상 연장이 안됩니다. 인위적으로 향기를 7잔이상 뽑아낸다는 것은 무리이죠. 그런 외형적인 것 보다는 향기가 좋다 나쁘다 하는 그것은 결국 '나' 라는 것을 내세웠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차를 계속 음미해 가다보면 차를 마시는 주체로서의 自我가 없다는 것

을 알게 되고 차 맛이라는 대상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사 맛과 향이 나지 않아 차의 맛이 좋지 않다하더라도 이 또한 분명 차맛입니다. 맹물을 마셔도 맛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시는데 '내'가 없음을 분명히 자각하는 것으로 맛의 변화를 계속 관찰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음식 어떤 물을 마셔도 배타하지 않습니다. 맛보는 자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쓴 맛은 쓴 맛대로, 단 맛은 단맛대로, 맹물은 맹물대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분별은 하지만 집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7번까지 향기는 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들면 한 두잔 마시고 나면 강박관념이 들어 곤란해지죠. 그러한 논리에 연연해서는 안됩니다.

질문 : 분위기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달 밤에 마시는 차와 낮에 마시는 차와는 맛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답 : 그럼요. 주변의 조건에 따라 차 맛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시각적으로 담배연기가 피워오르는 것을 보면서 피워야 맛이 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담배를 피우면 맛이 없다고 말합니다. 담배를 끊는 방법중의 하나는 눈을 감고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것하고 입맛하고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차 맛도 분위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달빛이라든가 주위 분위기라든가 대화하는 내용에 의해서도 상당

히 달라집니다. 차 맛은 혀 끝에 접촉된 부위만이 아니라 다른 주위 조건이나 환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나비가 한 마리 날아서 이곳에 앉느냐 저 곳에 앉느냐에 따라서 런던에 폭풍이 몰아 칠 수도 있고 눈발이 날릴 수도 있다.' 이것이 '나비효과'라는 과학이론인데 마찬가지로 차 한 잔으로 자연하고 동화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중중무진의 화엄연기 그대로 아납니까!

한잔의 차 맛이 부분적인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전존재이고 삶자체입니다.

문 : 맛은 六根에서 나오는 것인데, 육근자체가 관이라는 것과 성격이 먼 것은 아납니까?

답: 舌根은 혼자 작용이 안됩니다. 대상인 차를 만나면 맛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것이 인연입니다. 연기라 하죠. 혀와 차, 물이 만나면 맛이 생깁니다. 맛이 생기면 우리는 그렇다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 관념이 좋으면 계속 마실려고 하고 맛이 없으면 그치죠. 이것은 '나'라는 業을 내세워 판단하게 되기때문인데 관이라는 것은 혀와 차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맛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혀와 차가 만났을 때 맛이라는 감각이 생김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감각은 마음입니다. 감각이라는 마음을 또다른 마음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재밌잖아요. 이렇게 느끼는 감각이 마음인데 이마음을 내가 아는 것이죠. 느끼는 감각도

마음이고 그것을 아는 것도 마음이죠. 느끼는 감각을, 마음을 마음이 안다는 것입니다. 기신론에서는 수행하여 최종 체험이 무엇인가하면 마음이 마음을 깨달아 마음이 마음을 모르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마음 감각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느끼는 주체가 없음을 알고 느끼는 감각의 대상이 없음을 안다면 느끼는 자체가 마음이므로, 마음이 둘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통일됩니다.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차도 혀와 만나면 맛이 생기지만 맛이 자기 마음인 것입니다. 맛을 보는 주체와 맛이 따로 있는 줄 알고서 맛을 이분화시켜 '내가 맛을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느껴지는 맛을 계속 관찰하다보면 맛을 보는 주체와 대상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냥 맛 자체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마시다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잘 감지가 되지 않을 겁니다.

문: 茶道는 일종의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차를 마시며, 스님하고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다른 생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처럼 참선할 때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면 화두만을 看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하는 주체를 看해야 됩니까? 내가 이뵈고를 찾으면서 찾는 놈외에 또다시 망상을 피우는 놈을 합칠 때 깨침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합쳐질 수 없죠. 합칠려고 하는 마음은 화두 참구하는 마음

을 妄想과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망상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물론 화두를 참구하는 마음이 一念이 되면 화두의 타파가 가능해지고 깨달음은 옵니다. 하지만 화두를 참구하는 마음에 망상 피우는 생각을 합칠려는 자체가 망상입니다.

말하자면 화두 참구하는 마음과 망상은 하나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합칠려고하면 할수록 더더욱 선명하게 분리되어 버립니다. 설령 참구하는 마음과 망상이 합쳐졌다고 해도 참구하는 마음과 망상을 하나로 합치려는 마음이 작용하는 한, 또 다시 분리되어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합치게한 주체가 계속 존재하는 한 객체인 화두참구하는 마음과 망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다시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참구하는 마음과 망상이 실체화되어 독립체로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은 합치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서 합칠려는 의도는 業이 되는데 업이란 실재 있는 그대로를 놓아두지 않고 造作하여 왜곡시키는 성질을 말합니다. 조작하는 業은 대상을 형상화시키고 형상화는 다른 것과 분리독립시키게 되지요. 또 그 이미지를 똑같이 복제하여 독립된 실체의 모습으로 존속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참구하는 마음과 일어나는 망상을 형상화시키고 독립시켜 계속 실체로서 존속시키려 하게 되지요. 그것이 조작하는 業의 성격이며 생각이요 知識이 됩니다.

조작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조

작하는 주체로서의 自我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妄想과 參究하는 마음을 독립된 실체로 조작하는 주체입니다. 때문에 합친다는 말은 서로가 실체로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독립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화두를 참구하면 화로에 눈독듯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며, 참구하는 마음도 독립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구하는 마음이 순숙해지면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참구하는 마음과 망상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인정 되지않으면 처음부터 합치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이미지란 의미와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미지에 가려서 實相이 왜곡되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실상을 가리는 이미지는 다름아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깨닫고자 하는 의도적인 마음이 이미 想定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합칠려는 의도는 망상을 존속시키는 주체가 되어 망상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사스님들은 한결같이 깨달음을 기다리지도 말고 깨달으려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장애가 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깨달으려는 마음을 버릴 때 화두 참구

는 진척이 있게되고 話頭一念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됩니다.

그래서 원래 화두드는 방법에서는 화두를 들 때 딴 생각이 나면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조작하는 業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하여 일어난 망상을 연기가 허공에서 사라지듯이 하게 하는 매우 간단명료한 방법이지요.

생각이 일어나는데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차맛을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첫째는 처음 느끼는 맛과 변해가는 맛을 관찰하는 힘이 약하거나 잘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 잡다한 생각이 도리어 관찰하는 마음을 妨害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관찰이 잘될 때에 여러 잡다한 생각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때의 현상은 좋은 것입니다. 공부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잠재되어 있던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차맛을 보면서 생각이 일어나면 내버려 두고 맛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듯이, 화두를 들면 생각이 일어났다가 내버려두면 생각은 스스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문 : 그 전에 생각따라 화두가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답 : 그러니까 얼른 알아 차려야죠. 따라가면 또 낚아채서 '이렇고' 하고 疑心을 일으켜 알아차려야 합니다. 따라가 버리면 안되죠. 무슨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 사람 마음이란 또 그 일을 해서 똑같은 성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얻어지지 않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경험을 했다하여 또 느낄려고 하면 그것은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또 느낄려고하는 마음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칠려고 수행을 하지만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말라고 大慧스님은 서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행의 요체란 그런 것입니다.

문 : 기도를 하면서 머리끝이 아프다는 것은 氣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답 : 기의 흐름이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기도를 하거나 좋은 법문 들었을 때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風界(風大)의 작용입니다. 좋은 마음 좋은 에너지에 의하여 몸의 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여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은 번뇌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기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기의 흐름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가 원활하게 되

3)생각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 이미지는 독립적이고 실체적이고 복제적이다. 예를 들어 찻잔이라는 생각은 책이라는 생각과 다르다. 서로 공통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찻잔과 책의 이미지가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은 독립적이고 실체화되어 있음을 말한다. 복제적이라는 것은 실제의 찻잔과 책은 無常하여 부서지거나 없어질수 있으나, 생각으로 이루어진 찻잔과 책은 현실적으로 부서지거나 없어지지않는다. 찻잔과 책이라는 개념을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버리지 않는 이상 시간과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계속 똑같이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식도 생각과 같은 종류이므로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성격이 바로 業이라고 하는 것이다. 때문에 합칠려는 의도는 참구하는 마음과 일어나는 망상을 이미지를 가진 생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구하는 마음은 망상과 그 이미지가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실체적이기에 합치하려는 것은 불가능하고 도리어 합치하려는 의도도 하나의 이미지이므로 참구하는 마음과 망상과 함께 세가지의 독립체가 존립하는 형국이 되어 아무리 참구하려고 애를 쓰지만 애를 쓸수록 수행의 진전은 없고 망상만 끊임없이 일어나게하여 상기되기도하고 화도 나게 하여 중도에 포기하거나 자멸하는 경우가 생긴다.

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법문 하나만 잘 들어도 그렇게 되죠. 칠각지 중에서 염각지는 앉아서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법문 들었을 때에도 일어납니다.

· 문 : 스님께서서는 물을 바로 부어서 차를 우려내시는 데요?

답 :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뜨거우니까 바로 붓는 것이죠. 식힐려면 좀 놓아 두어야 합니다. 방법이라는 것도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굳이 하나의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을 융통성이라고 하는데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문: 공양을 한참하고 있으면 무슨 맛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관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답 : 음식 먹을 때 음식 맛을 못 느끼는 것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상이죠. 음식맛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못 느낄 리가 없습니다.

문: 염불을 하다보면 입으로는 염불을 하면서 머리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답: 그것은 당연합니다. 처음에 염불을 하게 되면 마음이 평정상태가 되었다가 조금 지나면 엉뚱한 생각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것은 염불로 마음의 평정상태가 오고 집중의 힘이 생기고 숙달이 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생각이 올라 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염불만 하십시오. 그러면 올라오는 힘이 약해집니다. 점점 적어집니다.

소년소녀가장돕기 후원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파아란 하늘과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들판! 생각만하여도 가슴 든든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의 마음도 풍성하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 주위에는 갑작스런 사고로 부모를 잃었다거나 부모가 있다해도 장애자이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장아닌 가장의 위치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소년소녀 가장이 많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작은 정성을 모아 소년소녀 가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정성이 이 어린 가장들에게 세상을 따뜻하게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요 우리들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년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해 올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동참 바라오며 아울러 새로운 분들의 동참을 권해 봅니다.

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우체국 온라인 / 503490-0043410
- 예 금 주 / 소년소녀(황소연)
- 연 락 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편번호 541 - 930)
- 송광사 강원내 혜 루 ☎ (0661) 755 - 5302

정진 (精進)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날 새벽,

한 천자가 부처님께 문안드리고 계승으로 여쭙었다.

“무엇으로 흐르는 물을 건너고

무엇으로 넓은 바다를 건너며

어떻게 해야 괴로움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맑고 깨끗해지나이까?”

부처님께서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믿음은 모든 흐름을 건너게 하고

계으르지 앎은 넓은 바다를 건너주며

정진(精進)으로 모든 고통을 버리고

지혜로서 맑고 깨끗하게 되느니라”

—잡아함경 제22:603경92-161상)

광주에 다녀와서

념제(念諦)/사미율의반



행자님과 마주칠 때마다 '정말 스님이 되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함께 행자 생활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 느낌으로 서로를 대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척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작년 이맘 때 처음 찾았던 송광사. 그리고 출가, 삭발, 행자생활, 수계, 강원에 입방.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 어지럽기까지 한다.

얼마전 증명사진 찍는 일로 처

음으로 광주에 나간일이 있었다. 출가 이후 처음 외출이라 그런지 산문밖의 세상이 무척 기대되고 설레이기까지 했다. 광주 지리에 밝은 스님 안내로 원주스님의 차까지 빌려 타고 광주로 달렸다. 여기저기 보이는 건물, 자동차, 힐끗 힐끗 쳐다보는 행인들 모두가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 같이 보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차 매연,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거기에 여러 소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식당에서 풍겨오는 냄새가, 거기에 사람들에게서 풍겨오는 화장품, 담배등의 냄새가 더해지면서 걷는 것도 힘들 지



경이었다. 북적대는 인파속에 들려오는 여러 소음들이 더욱 나를 지치게 했다. 어렵게 사진을 찍고 나니 송광사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광주에 오기 전에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등 여러가지 구경을 하려고 했던 계획들은 이미 사라지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만 싶었다. 몇 개월 전 내가 생활했었던 모습들인 데도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이다.

송광사로 돌아오는 버스 창 너머로 보이는 노란 벼들이 어지러웠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니 몇 개월만에 변해 버린 나의 모습이 무척이나 어색하게 다가 왔다.

부처를 이루기 위해 보살도를 닦는 수행자의 모습은 오간 데 없고 그저 이 한 몸 편하기만 바라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 차창으로 반사되는 나의 모습이 보살도를 닦는 수행자의 모습이 아닌 마치 수의를 입고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의 모습 같아 보였다. 삭발한 머리,

물 들인 옷, 가슴에 번호판만 붙이면 영락없는 죄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죄수의 모습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과거세 한량없는 겹동안 지어온 모든 죄를 참회하는 정진수행의 길 밖에는 없는 것 같다.

일주문으로 향하여 난 산길을

걸으니 출가할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때의 초발심의 마음이 그대로 되살아남을 느꼈다. 자만하지 않고 부지런히 초발심의 마음을 가지고 정진 또 정진 할 것을 다짐해 본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출발



도정(度晶)/사미울의반

날씨가 제법 쌀쌀하다. 뭔가 자꾸만 허전한 생각이 든다.

이번 겨울을 지낼 일.
큰방생활에 적응 할 일.

그리고 4년6개월간의 강당생활을 마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감.

이제 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

이 자꾸만 나의 머리에 스쳐 긴장감에 어깨가 무거워지곤한다.

대선사가 되어보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출가하지도 벌써 10개월째, 수계한지도 10일째건만 뒤돌아보니 내게 남는건 그저 관세음보살님 뿐, 앞으로도 나의 남은 삶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름이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쁠 때,
 돌아가신 아버님이 보고싶을
 때,
 죽은 조카 생각이 날 때,
 그리고 삭막한 아파트에서 혼자
 밥해 드시며 사시고 계시는 늙은
 어머니 보고 싶을때에도 그
 저 찾는 이름이 관세음 보살이다.
 사람이 주변환경에 따라 변한다고
 했던가!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내자신
 을 보며 변하지 않는 진리앞에 그
 저 쓴웃음만 지을 뿐이다. 좋다!

변해라. 기왕 변해질거면 철저히
 부숴지고 부숴져서 부숴진 만
 큼만이라도 진리로 가득채워보자.
 “나는 출가인인가?”
 “나는 진리를 찾아 수행하는 수
 행자인가?”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쳐
 본다. 과연 내가 진정한 수행자라
 면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출가인으로써 가져야 될 마음자
 세와 행동거지는?
 과연 나는 진정한 수행자인가?
 ‘승도아니고 속인도 아니고 그
 량 바에는 차라리 속세에 내려가
 서 살지 뭐하러 입산해서 이 고생

을 하느냐’는 모스님의 범문 한 구
 절이 생각난다.

절이라는 곳이 삶의 도피처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경책의 말씀인것 같다. 나
 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어머니
 덕분에 스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다. 절에 가서 큰 스님으로
 부터 귀신이야기, 도깨비 이야기
 도 듣고 붓글씨를 쓰실적이면 곁
 에 앉아서 먹도 갈아드리곤 했는
 데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 그게
 다 오늘에 나를 있게 해준 인(因)
 이었던 것 같다.

부디 그 좋은 인연들이 되어서
 하늘을 보아 한 점 부끄럼없는 청
 정한 스님이 되었으면 하는 게 요
 즘 나의 바람이다.

오늘저녁 예불시간에도 나는 이
 렇게 기도한다.

‘관세음보살님!

몸과 마음 항상 건강하고 밝은
 지혜 얻어 대자비한 마음으로 한
 량없는 못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勸修定慧結社文 (2)

海東曹溪山沙門. 知訥 撰

정원 譯/ 사집반

念佛轉經. 萬行施爲是沙門住持常法. 豈有妨礙. 然不窮根本. 執相外求. 恐被智人之所嗤矣.

華嚴論云. 此一切教門. 以根本智. 爲所成. 名一切智乘. 十方世界量同虛空爲佛境界故. 一切諸佛. 及以衆生. 所有心境. 互相參入. 如影重重. 不說有佛. 無佛世界. 不說有像法末法. 如是時分. 常是佛興. 常是正法. 此乃了義經. 但說有此方穢土. 別方淨土. 有佛無佛處所及像法末法. 皆爲不了義經.

염불하고 독경하고 만가지 행을 닦는 것은 사문(沙門)이 늘 해야 하는 올바른 법이니 어찌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을 궁구(窮究)하지 않고 현상(相)에 집착하여 밖으로만 구하면 지혜있는 사람의 비웃음을 살까 두렵습니다.

화엄론에 “일승교문은 근본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일체지승(一切智乘) 이라 한다.

시방세계는 허공과 같아 부처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과 중생이 지닌 마음과 경계가 서로 섞이는 것이 마치 그림자가 겹치는 것 같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계신 세계다, 안 계신 세계다, 상법이 다 말법이 다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항상 부처님이 계시며 항상 정법이라 하는 이것이 구경의 진리를 말씀한 경전이다. 다만 이곳 예토와 다른 세계인 정도, 부처님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상법 정법이 있다고 말한 경전은 모두 구경의 진리를 말씀하지 않은 경전(不了義經) 이다” 하셨습니다.

又云. 如來爲一切邪見顛倒衆生. 示現出興. 略說少分福德境界而實如來. 無出無沒. 唯道相應者. 智境自會. 不於如來出興滅沒之見. 但自以定觀二門. 以治心垢. 情在相存. 我見求道. 終不相應. 須依智人. 自慢. 敬心徹到. 方以定慧二門決擇.

先聖教旨如斯. 豈敢造次. 輒有浪陳誓遵了義懇苦之言. 不依權學方便之說. 我輩沙門. 雖生末法. 稟性頑癡. 若自退屈着相求道. 則從前學得定慧妙門. 更是何人. 所行之事. 行之難故. 捨而不修. 則今不習故. 雖經多劫. 彌在其難. 若今強修難修之行. 因修習力故. 漸得不難. 古之爲道者. 還有不從凡夫來者耶. 諸經論中. 還有不許末

또 “여래가 사된 소견에 떨어진 일체 중생을 위해 출현하여 복덕의 경계를 약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여래는 나옴도 사라짐도 없는 것이니 오직 도와 상응하는 자만이 지혜와 경계가 저절로 회합하여 여래가 출현하고 사라진다는 소견을 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선정과 관법 두문으로써 마음의 때를 다스릴 것이니 생각이 있고 현상이 있어서 나라는 것이 있는 소견으로 도를 구하면 마침내 상응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에게 의지하여 스스로 교만을 꺾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하여야 마침내 선정과 지혜의 두 문으로써 결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옛 성인이 가르친 뜻이 이와 같으니 어찌 잠깐이라도 쓸데없이 말하겠습니까?

반드시 간절하게 말씀하신 구경의 진리를 따르고 방편의 말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문들이 비록 말법에 태어나 성품이 둔하고 어리석으나 만일 스스로 물러나 현상에 집착하여 도를 구한다면 전에 배워 체득한 정혜의 신묘한 문은 다시 어떤 사람이 행할 것입니까?

행하기 어려운 까닭에 버리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익히지 않는 까닭에 반드시 여러 겁을 지나더라도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익지로라도 닦는다면 그 닦기 어려운 행이라도 닦아 익힌 힘이 있기 때문에 점점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도를 닦는 사람들이

世衆生. 修無漏道乎.

圓覺經云. 末世諸衆生. 心不生虛妄. 佛說如是人. 現世卽菩薩. 華嚴論云. 若言此法. 非是凡夫境界. 是菩薩所行. 當知是人. 滅佛知見. 破滅正法.

諸有智者. 不應如是. 不勸修行. 設行不得. 不失善種. 猶成來世. 積習勝緣. 故唯心訣云聞而不信. 尙結佛種之因. 學而未成猶蓋人天之福. 由是觀之. 不論末法與正法時殊. 不憂自心昧之與明. 但生仰信之心. 隨分修行. 以結正因. 遠離劫弱. 世樂非久. 正法難聞. 豈可因循. 虛送人生.

범부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까?

모든 경전에 말세중생이 무루(無漏)의 도를 닦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원각경(圓覺經)에 “말세의 중생들이 마음 가운데 허망한 생각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이 바로 현세의 보살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였으며 화엄론(華嚴論)에 “만일 이 법이 범부의 경계가 아니요 보살의 행한 일이라 한다면 이 사람은 불지견(佛知見)을 없애어 정법을 파괴할 사람이다.” 고 하셨습니다.

모든 지혜있는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이 수행을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수행하여 당장 증득하지 못하더라도 선(善)의 종자를 잃지 않아 내생에 쌓아 익힐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심결(唯心訣)에 “부처님 법을 듣고 믿지 않더라도 부처님이 될 인연을 맺는 것이고, 배워서 성취하지 못 하더라도 사람과 하늘의 복보다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말법과 정법이 다르다 따지지 말고 내 마음이 어둡다 밝다 걱정하지 말고 다만 믿고 우러르는 마음을 내어 능력껏 수행하여 올바른 인연을 맺어 비겁함과 나약함을 멀리 벗어나야 할것입니다.

세속의 쾌락은 오래 머물지 않고 바른 법은 듣기 어려우니 어찌 헛되이 인생을 보내겠습니까?

사십이장경 증에서

도빈(道彬) / 치문

佛言 學佛道者 佛所言說
皆應信順 譬如食蜜 中邊
皆恬 吾經亦爾

佛言 沙門行道 無如磨牛
身雖行道 心道不行 心道
若行 何用行道

佛言 夫爲道者 如牛負重
行深泥中 疲極不敢 左右

顧視 出離 泥 乃可蘇息沙
門當觀情欲 甚於 泥 直心
念道 可免苦矣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불도를 배우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응당히 모두 믿고 따를지니라. 비유하건대 꿀을 먹음에 중간과 가장자리가 모두 단 것과 같아 나의 경도 또한 그러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문이 경행함에 소가 연자방아를 돌리는 것 같이 하지 말라. 몸은 비록 경행하나 마음은 도를 행하지 않나니 만일 마음의 도를 행한다면 어찌 경행함이 필요하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저 도를 닦는 사람은 마치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깊은 진흙속으로 들어 가서 지극히 피로하여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고 진흙을 벗어 나셔야 비로소 숨을 돌리는 것과 같으니라.

사문은 마땅히 정욕(情欲)이 진흙보다 심함을 관하여 곧은 마음으로 도를 생각하여야 고통을 면할 수 있느니라.

佛言 吾視王侯之位 如過
 隙塵 視金玉之寶 如瓦礫
 視紈素之服 如 帛視大千
 界 如一訶子 視阿 池水
 如塗足油 視方便門 如化
 寶聚視無上乘 如夢金帛
 視佛道 如眼前華 視禪定
 如須彌柱 視涅槃 如晝夕
 寤視倒正 如六龍舞 視平
 等 如一眞地 視興化 如
 四時木諸大比丘 聞佛所
 說 歡喜奉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왕과 제후의 자리를 보기를 틈으로 지나는 먼지와 같이 여기며 금이나 옥같은 보배 보기를 기와와 자갈같이 여기며, 흰 바탕의 옷 보기를 헐은 비단같이 여기며, 대천계(大千界) 보기를 하나의 하자(작음을 비유)같이 여기며, 아녹지(보배가 가득한 연못) 보기를 발에 바르는 기름같이 여기며, 방편문 보기를 화보취(환상의 보배더미)같이 여기며, 무상승 보기를 꿈속의 금과 비단같이 여기며, 선정 보기를 수미산의 기둥과 같이 여기며, 열반 보기를 낮과 밤으로 깨어 있는 것같이 여기며, 도정(넘어지고 바르고) 보기를 육룡(육근)이 춤추는 것같이 여기며, 평등 보기를 일진지 같이 여기며, 홍화(교화가 흥하는 것) 보기를 사계절의 나무와 같이 여긴다.

송광사 발전기금 적립상황

@정혜사편집실 기금

이월금액-14,000,780원

수입액-1,053,450원

지출액- 3,000,000원

(14호 발간비용)

잔 액- 12,054,230원

@법망경판매 수입금

이월액- 28,484,050원

수입액- 6,899,000원

지출액- 0 원

잔 액- 35,383,050원

@현 적립 총액: 47,437,280원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송광사강원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혜사' 편집실에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하여는 지면을 통해 밝혀드렸으나, 강원에 직접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은 미처 배려해드리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96년9월 이후부터 강원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후원내역을 밝혀드립니다.(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신는 분들은 편의상 후원금을 모두 합산했습니다)

박계현외: 300,000원, 김춘희: 50,000원, 신증녀외: 1,200,000원

김정숙: 50,000원, 권해숙: 450,000원, 김현정: 1,200,000원

서영숙: 300,000원, 최도영: 450,000원, 최송섭: 200,000원.

총합계: 4,200,000원 (1996. 9~1997. 10)

편집후기

가을산철 편집실은 마음부터 바쁘다. 안거철의 반박에 안되는 기간이 부담을 주기 때문인데, 설상가상으로 강원사정으로 인하여 편집위원이 두 번이나 변동되어야 했으니…….

강원식구가 많이 늘어난 덕분에 원고모집은 수월했지만, 역시 삽화와 사진에 문제가 발생했다. 재주있는 스님이 사정으로 강원을 그만두어야 했기에 이 자리를 메울 방법을 찾느라 편집실은 또 한번 애를 먹어야 했다. 들은 풍월이 있어 그런대로 마무리 지었지만 소임에 대한 부담감은 살아있다.

다행히 새로 방부들인 사미율의반스님중에서 해보고 싶다는 스님이 있어 소임을 맡기기로 했으니, 다음호에는 좀 수월할 듯 싶기는 한데…….

이제 가을도 갈길을 재촉하는 듯 싶다. 몇일 사이에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 조계산도 붉게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뭄탓인지 단풍잎들이 가뻐다.

이제 정혜사에 쏟았던 수고로움도, 소임에 대한 부담감도 이 가을 낙엽에 붙혀본다.

☺ 표지 이야기

사중에 큰 행사가 있을 때면 강원학인 스님들이 소임을 맡습니다. 지난 10월 3일에 있었던 효봉사님제에도 역시 강원스님들이 소임을 맡았습니다. 특히 많은 대중의 공양을 짓는 공양주소임은 가장 중요한 소임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연기는 맵고, 따가운 화기와 밥을 푸는 삽질등은 온몸을 땀으로 흠뻑 적게 했지만 뿌듯한 행복이 함께합니다.

☺ 정혜사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

표충사(밀양) 주지스님, 덕인스님, 최용진, 류인석, 허명옥, 장양경, 박정숙, 허 찬, 김현옥, 김옥기, 장혜자, 한봉선, 허보광, 장보명화, 김종학, 김갑숙, 박경자, 배상현, 신형환, 조대길상, 도서출판 보림

■ 장학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

- 진옥스님- 350,000원

☺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강원 학인의 손으로 만들고 있는 '정혜사'는 저희 강원 내에서 원고에서 편집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틈틈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 믿기에 우리는 이를 고집합니다.

정혜사를 발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송금하실 경우 꼭 전화로 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2864-0205429-17

예금주 : 서화교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정혜사 편집실

우. 541-930 ☎ (0661) 755-5300, 5302

정화스님 반야심경 및 유식30송 강의 테이프를 보급합니다

송광사 강원 학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되었던 특강내용을 카세트테이프에 담았습니다. 스님의 핵심을 꿰뚫는 유식강의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유식을 명쾌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본 테이프는 저희 강원학인들이 다시 듣고 싶어 제작하기로 하였지만 유식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하여 보급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에 본 강원에서 특강하셨던 용운스님의 동다송 테이프도 함께 보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강의 내용 : 반야심경, 유식30송
- 테이프분량 : 반야심경, 유식30송(정화스님강의) -90분용 16개
(청전스님의 티벳불교2개포함)
- 보급 가격 : 40,000원(교재1권 포함)

- 강의 내용 : 동다송특강
- 테이프분량 : 동다송(용운스님강의) -90분용 17개
- 보급 가격 : 40,000원(교재1권 포함)
- 구입 문의 : 송광사강원, 전화(0661)-775-5302

송 광 사 강 원 회 계

본 테이프 판매 이익금은 송광사강원 발전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약사라 이름뛰고 십이대원(十二大願) 세웠으랴
사대(四大)로 난 병이면 나누어 주시련만
마음속 삼독병(三毒病)이라 아시고도 모르신가

* 인암스님의 송광사 순례시조집 중에서

藥師殿 보물 제302호이며 단간으로 만들어진 송광사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법당이다.